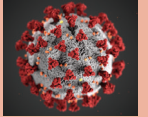


the PEACE JOURNALIST

이번 호에는...

- '전쟁의 과제'을 보여주는 만화책
- 콩고민주공화국, 프랑스, 스페인, 짐바브웨, 미얀마에서 온 소식
- 나이지리아 언론, 종교 적대감에 불을 붙이다

스페셜 리포트: 평화저널리즘과 코로나-19



평화저널리즘과 트라우마 담론, 그리고 분열된 사회에서의 언론 보도

북아일랜드

the PEACE JOURNALIST

표지 사진: 폴 갈라거, 벨파스트 웨이브 트라우마 센터에서(촬영: 알란 레오나드)

피스저널리스트는 미국 미주리주 파크대학교의 글로벌 평화저널리즘 센터(the Center for Global Peace Journalism)에서 일 년에 두 번 발행하는 온라인 저널입니다. 피스저널리스트는 평화저널리즘 실천가와 교사, 학생들을 위한 뉴스 및 정보 확산을 위해 일합니다.

피스저널리스트는 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기다립니다. 평화저널리즘과 관련된 프로젝트, 수업, 제안 등의 짧은 소식(500자 내외)부터, 평화 및 갈등 감수성을 바탕으로 하는 저널리즘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관련 분야 학술 연구(1000-1500자 내외)도 환영합니다. 전반적인 평화분야 프로젝트에 대한 소식보다는, 분명한 미디어 중심 시각에 기초한 소식을 받습니다.

마감기한: 3월3일(4월호) / 9월3일(10월호)

편집: 스티븐 영블러드 Steven Youngblood
(글로벌 평화저널리즘 센터장)
감수: 캐롤 게티 Prof. Carol Getty, 앤 숄티스 Ann Schultis

번역: 김가연 gayeon29@gmail.com
진선미 wwsunmi@gmail.com
강수연 suyeonllkang@gmail.com

문의: steve.younblood@park.edu
트위터 - @Peace Journ
페이스북 - Peace Journalism group
Center for Global Peace Journalism,
Park University 8700 NW River Park Dr
Parkville, Missouri 64152 USA
www.park.edu/peacecenter



목차

3 코로나19와 평화저널리즘 **18** 콩고, 소말리아
평화저널리즘 원칙에 따른 코로나 보도 만화책, 전쟁을 탐구하다

5 북아일랜드
트라우마 보도 워크숍

6 북아일랜드
소셜 미디어, 윤리, 그리고 평화저널리즘

8 북아일랜드
분열된 사회의 언론

10 캔사스시티
인권, 저널리즘 행사

12 미얀마
미흡한 로힝야 보도

15 프랑스
허위 정보, 세계 포럼

16 캘리포니아
로타리 세계 평화 컨퍼런스에서의 평화저널리즘

17 카메룬
CCMN 전국적으로 시작하다



20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의 미디어 훈련

22 나이지리아
종교 적대심에 불을 붙이는 언론

23 베네수엘라, 스페인
학생들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24 카메룬
#DefyHateNow 캠페인

25 아프가니스탄
스포츠라이트: 언론인의 안전

27 짐바브웨
세계 라디오의 날을 기념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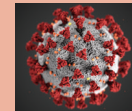
평화저널리즘이란?

평화저널리즘은 편집자와 기자가 평화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어떻게 구성할지, 어떤 단어를 선택할지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은 물론이고, 좋은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손상시키지 않고 평화적인 시도나 평화활동가를 지지하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평화저널리즘에 포함됩니다(평화저널리즘, 제이크린치&맥골드릭). 평화 저널리즘은 평화적인 시도와 비폭력적인 해결책을 보다 가시적이고 실용적으로 만드는 것을 통해 평화 활동가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돕습니다. 더 많은 평화저널리즘 자료나 관련 온라인 링크는 www.park.edu/peacecenter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글로벌 평화저널리즘 센터

글로벌 평화저널리즘 센터는 갈등, 사회 불안, 화해, 해결 및 평화에 관한 보도 개선을 위해 전 세계 언론인, 학자 및 학생들과 협력합니다. 이 저널을 포함하여, 수업, 워크샵, 강연, 블로그 및 기타 자료 등을 통해 미디어가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를 거부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자극적인 주류 언론에 대응하여 민족/인종/종교 소수 집단, 여성, 청년, 이민자 등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 보다 세심한 시각을 제공하는 기사 제작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스페셜 리포트: 평화저널리즘과 코로나-19



평화저널리즘 원칙을 반영한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보도

스티븐 영블러드 Steve Youngblood

언론인에게 트라우마적인 사건을 보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특히 그 사건이 언론인 자신, 그의 가족, 그의 동료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면 더욱 그렇다. 이런 어려움 뿐만 아니라, 언론인들은 복잡한 과학 정보를 설명해야 하고 혼란을 조성하지 않으면서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 이것이 언론인들이 코로나-19를 보도하며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는 이유다. 평화저널리즘 원칙이 여러 다른 보도(난민, 선거, 사회 불안, 인종, 테러리즘 등에 대한)에도 가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제껏 보도했던 것 중 가장 어려운 이야기를 보도해야 하는 기자들에게도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케냐, 영국, 키프로스 Cyprus의 평화저널리즘 전문가 세 명은 코로나-19 보도에 평화저널리즘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이메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들 중 두 명은 공동체성 collectivity을 지지하고 대립을 지양하는 책임 있는 언론의 역할을 강조했다.

케냐 롱고대학 Rongo University의 언론/민주주의/평화/안보 센터의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는 프레드릭 옹겐가 Fredrick Ogenga 교수는 기자들이 코로나-19 관련 보도에 아프리카 전통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고 있다.” 아프리카 전통 원리가 코로나-19 보도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보았다. 인류애를 의미하는 우투 Utu, 연합을 의미하는 우모자 Umoja, 그리고 공동의 책임을 의미하는 하람비 Harambee의 원리를 코로나-19 보도에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동아프리카의 평화저널리즘 Peace Journalism in East Africa에서, 옹겐가 교수는 이 원리들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아프리카적 관점을 평화세우기와 갈등(그리고 트라우마)에 관한 보도에 적용하려는 생각은 아프리카의 언론이 변혁적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다. 선정성을 조장하는 복사-붙이기 식의

보도와 대비되어 범아프리카의 제도적 그리고 방법론적인 접근과 아프리카의 철학인 우투 Utu, 우모자 Umoja, 하람비 Harambee를 새로운 가치로 적용함으로써 말이다.’ (2020-Routledge) 라고 말했다.

책 중동의 언론과 평화 Media and Peace in the Middle East의 저자이자 영국 레스터 드몽포르 대학 DeMontfort University에서 디지털 저널리즘과 미디어 담론을 가르치고 있는 길리아나 트리펠리 Giuliana Tiripelli 교수는 특히 공동체성 collectivity과 관련해 일치된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희망과 신뢰를 가져오는 것, 대립을 지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평화저널리즘이 이 방향에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언론인들이 대중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에블라 처럼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비슷한 어려움을 이겨냈던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고 강한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적절한 행동을 하게 된다. 공동체 자체에 초점을 둔 이야기를 또한 지역 정체성의 건설적인 회복과 상호의존에서 얻는 이익을 뒷받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주의적 철학관을 지지했던 많은 시민에게는 이러한 새로운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엄청난 문화충격일 수 있다. 평화저널리즘이 ‘현실로 돌아가는’ 평화적인 전환을 지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트리펠리 교수는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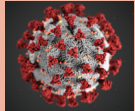
세 번째로 발표한 평화저널리즘 학자는 메틴 어소이 Metin Ersoy 조교수다. 그

스티븐 영블러드 Steven Youngblood는 피스저널리스트의 편집장이며, 『평화저널리즘의 원칙과 실제』 Peace Journalism Principles and Practices의 저자로, 미국 미주리주 파크빌에 있는 파크 대학교에서 글로벌 평화저널리즘 센터의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다.

는 북키프로스의 동부 지중해 대학 Eastern Mediterranean University 커뮤니케이션 언론학과 교수이자 뉴미디어와 저널리즘 부학과장을 맡고 있다. 어소이 교수는 평화 저널리스트들은 평화저널리즘 개념을 처음 제시한 요한 갈통이 제안했던 세 가지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어소이 교수는 이러한 원리들은 사실 지향적이고 사람 지향적이며 해결책 지향적이라며, 다음과 같이 썼다. “평화 저널리스트들은 코로나-19 관련하여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을 모두 밝힐 필요가 있다. 이 맥락에서 ‘선전 propaganda’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며, 대중에게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19 관련 뉴스를 보도하며 언론인들이 겪는 또 다른 어려움은 ‘숫자’와 관련된 것이다. 언론인들은 숫자에 초점을 두기보다 사람에게 초점을 뒀야 한다.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사람 지향적인 이야기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러나 언론인들은 선거처럼 숫자를 내세우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언론인들에 대한 마지막 제안은 건강 관련 이슈들에 접근할 때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중매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에 대한 공식 발표를 방송한다. 그러나 뉴스를 보고 있으면, 해결책보다는 숫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언론은 건강 관련 이니셔티브 health initiatives를 강조해야 하며, 엘리트만이 아닌 대중들에게도 목소리를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언론인들은 코로나-19의 가시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우리는 건강 이슈가 주는 비가시적인 영향과 사회적 고립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러한 이슈에 관해서는 심리학자나 전문가들이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럼으로써 언론인들은 대중에게 질 좋은 뉴스를 제공하고 전반적인 공중 보건

스페셜 리포트: 평화저널리즘과 코로나-19



코로나-19

3쪽에서

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결론지었다. 어소이 교수가 언급한 사실 지향, 사람 지향, 해결 지향 이외에도 평화저널리즘에는 다른 다양한 원리들이 있으며, 책 『평화저널리즘 원리와 실천』Peace Journalism Principles and Practices에도 참고할 만한 아이디어가 실려 있다.

코로나-19를 보도하는 데 있어, 평화저널리스트들이 주력해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자신의 보도 결과를 고려할 것(내 기사가 불필요한 혼란을 조장하는가?), 소외된 이들에게 목소리를 부여할 것(시간제 근로자, 노숙인, 재소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과 같은 사람들은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가?), 선동적인 언어와(“치명적인deadly,” “망연자실한devastated,” “참혹한gruesome”) 이미지(불필요하게 상세한 사진, 사건을 과장하거나 오도할 수 있는 사진들) 피할 것.

늘 그렇듯이, 평화저널리즘은 팬데믹과 관련된 주류의 내러티브를 탈피하고자 반대 내러티브를 제시한다(예컨대, 일반 시민들의 은퇴 자산이 소멸되었는지,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회복할지 또는 회복할 수 있을지, 이 사태로 이익을 볼 사람들은 누구인지, 어소이 교수가 말한 것과 같이 사회적 고립의 영향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또한 평화저널리즘은 선전, 특히 당파적 정치적 행보를(트리펠리 교수가 언급했던 대립) 피해야 한다.

평화저널리즘은 북아일랜드에서 열렸던 두 개의 트라우마 보도 세미나에서 논의했던 지침을 적용하여 희생자들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보도한다(6쪽 참고). 사실, 평화저널리즘이라고 이름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언론 기관에서 제안한 코로나-19 관련 보도 지침 또한 이러한 평화저널리즘 원칙과 책임 있는 트라우마 보도 원리를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윤리 언론 네트워크Ethical Journalism Network는 다음 원리를 제시한

다.(<https://tinyurl.com/w66pzu9>)

1) 선정성과 불안을 조장하는 언어와 이미지로 유언비어를 생산하는 것을 지양: 예를 들면, 슈퍼마켓의 텅 빈 선반, 사재기와 같은 사진들은 긴장을 유발하고 더 많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2) 인종 프로파일링racial profiling을 피하는 것: 새로운 확진자가 발생할 때마다 바이러스의 진원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할 필요는 없다.



공동체에 초점을 둔 이야기는 그 자체로 지역 정체성을 건설적으로 재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길리아나 트리펠리



3) 피해자들을 보호할 것: 관련인들의 허락 없이 그들의 이름, 사진, 또는 신원정보와 관련된 자료들을 제시하지 않는다.

4) 정확할 것과 사실을 보도하기: 소문과 추측은 피한다. 현재 잘못된 사실들이 너무 많이 공유되고 있으므로 그러한 사실들을 인지하고 오보를 바로 잡아야 한다.

5) 전문가의 의견을 구한다: 신망 있는 의료진과 과학자들에게 의견을 구하나 과학적 조언은 종종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맥락을 제공하고 권위 있고 신빙성 있는 정보원과 자료들을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제공한다.

문제적 사례, 모범 사례

아직 코로나-19에 대한 양적 분석 또는 내용 분석에 의존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으나, 이 세 명의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본 보도자료들에 대한 확고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어소이 교수는 바이러스 관련된 다양한 보도들이 관찰된다고 말한다. 그는 “심각한 오보와 선전 지향적인 뉴스들이 뉴미디어와 대중매체에서 퍼져있다. 키푸로스는 지중해 지역의 작은 섬이다. 이 섬의 대중매체는 코로나-19 관련 뉴스에 사용되는 언어에 아주 민감하다. 그러나 몇몇 온라인 미디어 회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뉴스 기사를 클릭할 것을 기대하며 미끼용 뉴스 헤드라인을 사용하고 있다. 예로, 코로나-19 해결에 대한 가짜 뉴스를 생산하거나 ‘백신 개발’이라는 헤드라인을 사용하여 독자들에게 잘못된 희망을 주고 있다. 키푸로스의 온라인 미디어보다는 기성 언론이 상대적으로 평화저널리즘을 더 잘 실천하고 있다. 온라인 미디어는 상황을 악화시키고,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고, 잘못된 정보를 주며, 대중에게 트라우마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케냐와 관련해서, 오겐가 박사는 지금까지의 보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케냐의 코로나-19 보도는 범아프리카 바이러스의 발생과 관련된 담론에서 연대를 통해 우투, 인류애, 하람비와 같은 범아프리카적 가치를 평화저널리즘으로 탁월하게 실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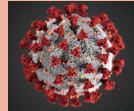
보도에서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케냐의 스탠드 뉴스Standard News는 최근 바이러스 보도에 ‘우리는 극복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포함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나이로비 공항을 통과할 수 없다’ 또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케냐 어부들에게 예상치 못한 호황기를 주고 있다’와 같은 반대 내러티브를 실었다.(<https://www.standardmedia.co.ke/>)

영국의 코로나-19 관련 보도를 분석하면서, 트리펠리 교수는 다음과 같이 관찰했다. ‘당신이 어떤 매체를 팔로우(구독)하고 있는지에 달렸다. 지역 사회 라디오들은 이용 가능

다음 쪽에서 계속

www.park.edu/peacecenter

스페셜 리포트: 평화저널리즘과 코로나-19



코로나-19

4쪽에서

한 긴급 보조나 지원책들을 알리는데 적절한 역할을 한다. 왜냐면 많은 초기 변화들이 지역 사회에서부터 일어나기 때문이다. 주류 언론에는 성공사례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없다. 이는 현재 많은 나라가 이제 막 새로운 정책을 시작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영국 정부가 더욱 분명한 조치를 취하고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는 현재, 영국의 보도는 한층 균형을 찾았고, 정확해졌으며, 대립을 악화시키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 성공을 거두고 있는 국가들에 초점을 맞추는 편이 훨씬 낫다.’

또 다른 전염병 보도: 2014년 에볼라

렉스포드 존슨Rexford Johnson

편집자의 말: 이 기사는 본래 2017년 10월 피스 저널리스트Peace Journalist 매거진에 실렸다. 코로나-19에 대한 이전의 기사에서 일관적인 논의와 언론의 협업을 강조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2014년 5월 25일 시에라리온에서 첫 에볼라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고, 이는 이웃 나라 기니Guinea에서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이 바이러스는 나라의 모든 지역, 구역, 지구까지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갔다.

의사소통 문제

발병 초기에 정부는 건강 교육 캠페인에 언론을 관여시키지 않으려고 했다. 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당시 언론은 에볼라를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보도했다. 사회는 전염된 사람들을 환자라기보다 피해자로 보았고, 이 때문에 대중들은 증상이 나타나도 의학적 조언받기를 꺼리게 됐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이 국경없는의사회와 같이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국제 의료진의 것과는 상이해지면서 의사소통 전략은 완전한 실패로 끝났다. 대중은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고, 두려움이 고조되었고, 지방 도시들은 정보가 차단됐으며,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만연하기 시작했다.

급속히 악화되는 상황과 함께, 주요 이해당

Vol 9, No. 1

사자들과 죽어가는 사람들 간 의사소통 공백이 계속 커지는 것을 보면서, 언론인들은 전통적인 언론 기능을 더는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자연스럽게 협동적인 언론의 역할에 주목해야 했다.

언론의 역할

2014년 7월 26일, 시에라리온 언론 연합the Sierra Leone Association of Journalism은 에볼라 발병 관련 보도 전략을 세웠다. 전국 48개의 사실, 지역 라디오 채널들은 이 네트워크에 방송시간을 기부했고 독립 라디오 네트워크Independent Radio Network 주관으로 매일 동시에 방송을 했다. 그 목적은 ‘보건부와 사회동원 위원회Social Mobilization Committee를 위한 초기 대응창구를 제공하고,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대중을 교육하기 위함이다...’ 프로그램들은 바이러스 감염 신호와 증상, 주요 서비스 제공자들의 역할, 새로운 의료 인프라의 의미 등에 대한 대중 인식을 개선하도록 설계되었다. 접촉자 추적조사, 안전한 장례, 자가 격리 관리 같은 사회적 통제와 고립, 사회적 낙인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프로그램 주제다. 지역 언론은 탐사가 아닌 정보와 민감성에 초점을 두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둘러싸인 언론인들은 급진적인 감시 역할을 거부했다. 안전하고 건강한 행동을 호소하는 매거진 형태의 메시지 디자인과 콘텐츠는 설득력이 있었다. 라디오가 에볼라와의 싸움에서 중추 역할로

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바이러스에 관한 훌륭하고 책임감 있는 보도들도 있지만, 평화저널리즘의 원리를 사용하면 보도 행태가 더 개선될 수 있다. 바로 지금이 기자들과 편집자들 스스로 보도에 대한 결과를 신중히 고려하고, 대중이 원하는 것을 보도할 때다.

빠르게 부상했다.

결론

에볼라 발생 지역에 사는 것은 깨지 않는 악몽이었다. 크리스마스 연휴나 부활절 휴가, 생일 파티, 휴가, 모임, 포옹, 악수, 심지어 교회 모임도 없는 1년을 상상해보자. 죽을 수 있다는 강한 두려움이 피부로 생생히 느껴졌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두려움, 사무실 출입구 손잡이를 만지는 두려움, 스튜디오에서 헤드폰을 사용하는 두려움, 두통과 열, 혹은 더 나쁜 것에 대한 두려움. 라디오는 2014년 9월과 2015년 4월에 있었던 두 차례 주요 국가 통제기 동안 계속해서 정보를 전달했다. 단순한 보도나 프로그램 진행을 넘어, 국가에 희망을 주는 것이었다.

렉스포드 존슨Rexford Johnson은 15년 이상의 언론 경력이 있다. 빌리버스 방송 네트워크Believers



Broadcasting Network의 프로그램 디렉터 및 시에라레온 독립 라디오 네트워크Independent Radio Network에서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다.

코로나 위협 속, 트라우마 분석 세미나 열리다

캐스린 존스톤Kathryn Johnston

2019년 3월 12일 목요일 새벽에 집을 나섰을 때, 밤새 내린 눈으로 차 앞 유리가 얼어있었다. 데리Derry에서 운전하는 도중, 거의 1년 전 친구이자 동료, 그리고 전국 언론인 조합의 회원이었던 리라 맥키Lyra McKee가 북아일랜드 분쟁의 최근 희생자로 사망한 곳을 지나 갔다.

리라는 다른 기자들과 폭동을 관찰하다가 새 아일랜드 공화국군 진정파New IRA의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리라는 북아일랜드 분쟁의 풀리지 않은 의혹을 조사하는데 헌신했던 사람으로, 살아있었다면 분쟁의 희생자들과 생존자들, 학생과 현 기자들, 학자들과 피스빌더들이 함께 트라우마 보도에 대해 논의하는 이 두 번의 워크숍에서 아주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보도가 어떻게 더 개선될 수 있을지 이야기해 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2020년 3월 12일과 13일에 데리와 벨파스트에서 열린 트라우마 저널리즘 워크숍에서 그녀의 삶과 열정은 내 마음의 중심에 있었다.



정치 폭력으로 3,7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섬 전체가 갈가리 찢기다시피 했던 고통과 비통의 해를 고찰하기 전에, 나는 리라의 비전을, 그가 경험한 트라우마를, 그 파트너 사라, 그리고 그의 가족 이야기를 꺼냈다. 수천 명이 부상당했다. 그들과 그들의 가족, 친구들, 이웃들, 나아가 이 분쟁을 지켜본 북유럽의 더 많은 사람은 이날의 상처를 여태껏 견디고 있다.

그 다음, 탐사 언론에 참여하고 있거나, 내러티브나 긴 글 형식의 기사가 게재될 수 있는 대안 플랫폼을 탐구하는 젊은 언론인을 지원하고자 리라의 이름으로 설립된 장학금을 언급했다.

캐스린 존스톤Kathryn Johnston은 북아일랜드의 저널리스트이자 연구자다. 마



틴 맥키네스의 허가받지 못한 전기, '총에서 정부로From Guns to Government'의 공동 저자이기도 하다. 캐스린은 데이타임즈, 데일리 텔레그래프, 벨파스트 텔레그래프, 아이리쉬 타임즈, BBC에서 일했다. 전국 언론인 연합의 아이리쉬 집행평의회 회원이기도 하다.



(좌) 데리에서 트라우마 워크숍을 진행 중인 제이크 린치 교수 (맨위) 트라우마에서 언론의 역할을 분석하는 학생들 (위)벨파스트메트 참석자 델스 쿡Delyth Cook이 그룹 토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알란 레오나드Allan Leonard)

장학금에 관련 세부 사항은 아직 논의 중이지만 올해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사회 책임을 다하는 트라우마 저널리즘을 논의했던 평화저널리즘센터 스티븐 영블러드, 팩트 체크를 위한 정서적 언어와 대안 웹사이트 사용을 논의했던 팩트체크 NIFactCheck NI의 알란 메반Alan Meban과 알란 레오나드Allan Leonard, 벨파스트 퀸즈 대학 박사생이며 웨이브 트라우마WAVE Trauma 소속으로 북아일랜드 분쟁으로 다리를 잃은 폴 갈라거Paul Gallagher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 갈라거는 트라우마와 희생자를 강조하며 어떻게 언론이 트라우마를 악화시키는지 그리고 언론인들이 트라우마를 더 잘 인식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고무적

다음 쪽에서 계속

트라우마 분석 세미나 6쪽에서

인 토론을 이끌었으며, 희생자들은 모두 똑같지 않다고 역설했다.

올해 코벤트리 대학Coventry University의 객원교수로 있는 시드니 대학의 제이크 린치Jake Lynch 박사는 분쟁 중 평화를 위한 언론의 개입에 대해 획기적인 활동을 바탕으로 통찰을 공유했다. 린치는 어떻게 언론이 '정의평화justpeace- 북아일랜드를 자주 방문하는 노트르담 대학의 국제 평화세우기 미국인 교수 존 폴 리더락John Paul Lederach이 추창하는 평화세우기와 연장선에 있는 정의에 대한 개념-를 추구하기 위해 언론을 어떻게 구조화해야 할지 논의했다.

벨파스트에서 소셜 미디어, 윤리, 평화저널리즘을 숙고하다

스티븐 영블러드Steven Youngblood

주 런던 미국 대사관과 주 벨파스트 미국 영사관의 후원을 받아 3월 9일 주에 열렸던 두 행사는 1년 동안의 북아일랜드 평화저널리즘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것이었다.

원탁 토론으로 진행된 첫 행사는 미 영사관에서 열렸다. 무엇보다도 흥미로웠던 것은 이 세션에서 언론인들이 순교자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놓고 벌인 토론이었다. 카슈미르Kashmir와 베이루트에서 있었던 이전의 세미나에서 언론인들은 이스라엘이나 인도에 맞서 싸우다 죽은 사람이라면 순교자로 불렀다고 말했다. 여기 벨파스트에서는 자폭과 같이 끔찍한 행동을 저질렀던 자신을 순교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관한 토론이 주를 이루었다.

그들 스스로 순교자로 부른다는 이유로 언론도 그들을 순교자로 여겨야 하는가? 몇몇 참석자들은 언론인들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구분 짓는 방식을 따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나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폭파범이 자신을 영웅이라고 부른다면, 언론도 그렇게 불러줘야 하는가? 또한 우리는 기계적 중립성false equivalence과 그로 인해 언론인들이 겪는 곤란한 점을 놓고 열띤 토론을 했다. 이 주제는 북아일랜드의 역사를 보았을 때 특히 중요했다. 또 다른 세션은 북아일랜드 분쟁 중에 군 막사로 사용되었으나 이제는 커뮤니티 센터로 탈바꿈한 거드우드 커뮤니티 허브Girdwood Community Hub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진행되었다. 벨파스트 메트로폴리탄 대학Belfast Metropolitan College의 후원을 받은 행사에서, 나는 소셜 미디어와 평화저널리즘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북아일랜드 사람 중 오직 22%만 소셜 미디어를 신뢰한다는 흥미로운 설문 조사 통계를 공유하며 그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소셜 미디어에 평화저널리즘을 적용하면 대중과 평화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열띤 토

뷰디지탈VIEWdigital의 엠네스티가 지명한 희생자와 생존자 이슈에 대해 칭찬한 후, 그는 리더락의 '정의평화' 접근을 다뤘다. 이 개념은 13명의 비무장 시위자들이 데리Derry에서 낙하산 부대the Parachute Regiment 총에 맞아 사망한 피의 일요일 20주기를 기억하며 1992년에 데리에 세워진 조각상 '분단을 넘어 손을Hands Across the Divide'로 설명되었다.

3월 13일 금요일에 열렸던 벨파스트 메트Belfast Met 참석자 중 대부분

다음 쪽에서 계속

론 속에서, 내게 던져진 가장 어려운 질문은 미래의 소셜 미디어를 예측하는 것이었다. 내가 사용한 '반쯤 비어 있는 유리잔glass half empty'의 비유를 통해 소셜 미디어가 선동적이고 권위적인 정부에 점점 더 많은 권한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자 했다. 또 다른 '반쯤 차 있는 유리잔glass half full'이라는 비유는 미디어를 더욱 잘 이해하는 대중들이 평화를 위한 다리를 만들고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소셜 미디어를 사용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었다.

내 발표는 벨파스트 메트Belfast Met 컨퍼런스의 일부였다. 이 컨퍼런스는 참여자들에게 라이브 스킬스Live Skills와 같이 젊은이들을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분야에 커리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소개했다.



2020년 3월, 미 영사관에서 열린 평화저널리즘 행사(맨위)와 벨파스트에서 열린 벨파스트 메트 컬리지

북아일랜드 컨퍼런스, 분열된 사회의 언론을 보다

알란 레오나드Allan Leonard

양일간 진행된 컨퍼런스에서는 미디어가 분열된 사회에서 보다 평화롭고 안정적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하는 역할을 모색했다. '조정 리소스Conciliation Resources'와 에든버러 대학의 정치적 결정 연구 프로그램 Political Settlements Research Programme과의 협력 아래 사회변화 이니셔티브Social Change Initiative가 조직한 이 행사에는 남아프리카, 콜롬비아, 미얀마, 르완다, 터키, 중동, 발칸, 카슈미르, 소말리아, 시리아, 네팔 및 북아일랜드 출신 기자들이 참여했다. 아일랜드 방송인 찰리 버드Charlie Bird가 국제 미디어 개발 투자 펀드IMDF, International Media Development Investment Fund의 모하메드 나납하이Mohamed Nanabhay와의 대화를 이끌었다. 버드는 리라 맥키Lyra McKee(역자주: 2019년 4월 북아일랜드 폭동을 취재하던 중 사망한 북아일랜드 기자) 사망 사건을 언급하면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저널리즘이 위협받는 사회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제4의 권력The fourth estate은

알란 레오나드Allan Leonard는 북아일랜드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팩트 체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팩트체크 NI의 공동 창립자이자 편집장이다. 북아일랜드의 평화세우기 관련 소식을 보도하는 웨어드 퓨처 뉴스Shared Future News의 편집자이기도 하다.



모든 것이 위협에 처해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말했다. 모하메드 나납하이는 미디어 개발 투자 펀드의 활동을 설명했다.

IMDF는 이 펀드에 재투자되는 이자 소득을 얻기 위해 독립 미디어 기업에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남아프리카, 발칸 반도, 헝가리, 폴란드를 비롯한 전 세계에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컨퍼런스 참석자와의 토론 중 뉴스 미디어가 시민 사회의 활동을 알아차리려면 혁명이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이 나왔

다. 나납하이는 알자지라에서 권력의 중심이 아닌 거리의 시선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고 답했다. 뉴스 조직은 권력 기관을 위한 보도를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된다. 나납하이는 "우리는 시민 사회를 다뤄야 하며, 소셜 미디어가 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장의 활동을 취재해야 하며, 매번 폭동만 보도 하지는 말자"며 권력에 진실을 고하는 것과 더 넓은 사회를 이해하는 것은 연관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평화 협정 분석에서 미디어의 역할

에든버러 대학의 정치적 결정 연구 프로그램은 국제 평화 협정에서 미디어의 역할에 관한 새로운 연구를 발표했다. 크리스틴 벨Christine Bell 교수의 주재로 프로그램 협력 연구원 팀 에플Tim Epple과 BBC 북아일랜드 텔레비전 시사 분야 책임자인 제러미 아담스Jeremy Adams 및 카트만두 포스트의 편집장 아누 카플Anup Kaphle의 토론이 있었다.

다음 쪽에서 계속

트라우마 분석 세미나

7쪽에서



이었던 학생들은 또한 안젤리나 푸스코Angelina Fusco의 강연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BBC 북아일랜드의 전 뉴스부 부장이었으며 저널리즘과 트라우마에 대한 다트DART, Direct Action on Research and Training 센터의 매우 권위 있는 오토버그 펠로우십Ochberg Fellowship을 받았다. 저명한 감독인 셴 머레이Sean Murray와 배리 맥카프리Barry McCaffrey도 동참했다.

셴 머레이 감독은 1972년 7월부터 1978년까지 영국 정부가 아마 Armagh주와 티론Tyrone주에서 120명 이상의 시민들을 살해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취재하는 장편 다큐멘터리를 찍었으며, 배리 맥카프리는 트레버 버니Trevor Birney와 함께 북아일랜드 로우이니슬랜드Loughinisland에서 6명의 남성이 동네 주점에서 월드컵을 보다가 살해당해 미제로 남아 있는 1994년 로우이니슬랜드 학살에 대한 노 스톤 언턴드No Stone Unturned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상을 수상했다. 이들의 작업은 북아일랜드 언론 자유의 시금석으로 남아 있다.

벨파스트와 데리에서 열린 트라우마 보도 워크숍은 근 1년 동안의 북아일랜드 평화저널리즘 프로젝트의 정점을 찍는 행사로, 런던 주재 미국 대사관과 벨파스트 미국 영사관의 후원을 받아 열렸다.



벨파스트에서의 트라우마 보도 컨퍼런스에서 진행된 소그룹 토론

www.park.edu/peacecenter

북아일랜드 컨퍼런스

8쪽에서

팀 에플은 평화 협정에 미디어가 할 수 있는 5가지 역할을 설명했다. (1) 인권 가치 촉진자로서의 미디어(네팔 협약, 2015); (2) 포용 가치 촉진자로서의 미디어(벨파스트 협정, 1998 및 아일랜드어 사용 권리, 미디어 제공을 포함한 권리); (3) 감시자로서의 미디어, 즉, 협정 후 주요 인물들의 활동 보도; (4) 협정에 관한 정보를 대중에게 전파하는 역할로서의 미디어; (5) 선전을 막아내는 방어자로서의 미디어(케냐 협정과 혐오 발언 감시 인용). 아누 카플은 네팔에서 최근에 통과된 법률이 2015년 평화 협정 선언과 상충되는 부분을 언급했다.

이는 도덕 경찰(역자주: 인도나 이슬람권에서 문화에 어긋나는 행동거지를 제재하는 경찰)을 주창하는 마오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이 권력을 쥔 결과라고 설명했다. 카플은 네팔 언론은 분열되어 있고 극히 당파적이라고 말하면서, 정치 저널리즘이나 오피니언 저널리즘이 아닌 진실을 위한 글을 쓰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제러미 아담스는 북아일랜드의 준군사적 휴전 당시 갈등을 보도하는 미디어의 역할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휴전하기 전 만큼 미디어의 역할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 역할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부패, 경제적 무능력 및 권력에 대한 상호책임에 관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한 편,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서라면 취재해야 할 시기에 한 걸음 물러나 있어야 하는지 질문이 나왔다. 아담스는 "진리를 향한 헌신을 멈춘다면, 갈등을 더 굼게 만들 수 있다"고 대답했다. 이는 그가 제작한 새로운 스포트라이트 프로그램인 '문제: 숨겨진 역사The troubles: A Secret History'의 이론적 근거이기도 했다. 북아일랜드의 논란의 역사가 곧 논란의 현재가 된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아담스는 "일종의 진실 말하기가 없다면, 역사를 재편하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 촉진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

국제 평화세우기 단체인 조정 리소스

Vol 9, No. 1



나딘 핵Nadine Hack이 기자들의 안전에 대해 논하고 있다. (사진: 알란 레오나드)

Conciliation Resources 사무국장 조나단 코헨Jonathan Cohen은 분열된 사회에서 미디어가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토론을 이끌었다. 패널로는 영국 방송통신규제기관 오프콤Ofcom의 콘텐츠 미디어 정책국장인 비키 쿡Vikki Cook, 아일랜드 뉴스 편집자 노엘 도렌Noel Doren, 미디어 다양성 연구소 사무국장 밀리카 페식Milica Pesic이 참여했다.

쿡은 오프콤이 최근에 의뢰를 받은 보고서를 언급했다. 영국의 공공 방송 서비스인 BBC가 어떻게 사회를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BBC는 취재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공정성(타당한 이유를 들며 중립성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도 유지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양성은 런던 본사(백인 및 남성)보다 지역 본부에서 더 두드러졌다. 노엘 도란Noel Doran은 미디어가 평화가 진전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아이리시 뉴스Irish News는 준군사적 폭력에 맞서 싸웠습니다." 노엘은 벨파스트 협정이 체결된 다자간 회담 기간에 협력했던 북아일

랜드 신문사 세 곳(벨파스트 텔레그래프, 아일랜드 뉴스, 뉴스 레터)을 사례로 들었다. "평화를 위한 시청자 전화 참여 프로그램에서 160,000건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결론

SCI의 부국장 파드라이크 쿨크Padraic Quirk는 "평화를 잘 보도할 방법과 분열된 사회에서 평화 만들기 중요한 이슈에 집중할 방법에 대해 오랫동안 열심히 생각해왔습니다."라고 말했다.

쿨크는 SDI가 심하게 분열된 사회에서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담론에 관여하고 더 발전시키고 싶어한다고 선언하면서 말을 마쳤다. "북아일랜드와 국제 사회에서 이런 흐름을 따르기 위해 사람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전문 지식을 보유한 결과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일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기사는 웨어드 퓨처 뉴스Shared Future News에 처음 실렸습니다.

저널리즘과 인권을 논하다

자넷 재스퍼슨 Janette Jasperson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권리에는 방해 없이 의견을 가질 수 있는 자유와, 모든 미디어를 통해 그리고 국경과 관계없이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받고, 전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 제19조 세계 인권 선언(1948)

11월 1일 금요일 오후, 미주리주 파크빌 Parkville 파크대학교Park University에 학생 기자, 학자,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였다. ‘인권과 저널리즘 : 도전과 기회’에 관한 토론을 위해서였다. 이 행사는 그레이터 캔자스 시티 평화세우기 컨퍼런스 ‘인권: 평화세우기의 기초’의 두 번째 세션으로 진행됐다.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Open Society Foundations의 대외정책 국장이자 해당 오후 세션의 첫 발표자였던 사라 마곤Sarah Margon은 언론인과 인권 운동가들은 ‘사촌지간’이라고 말했다. “둘 다 진실을 폭로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이니까요.” 마곤은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서 이 관계를 설명했다. 언론인들에게 인권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세계 인권 선언 제 19조에 따르면, 언론인들은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받고, 전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에 의존한다. 마곤은 그런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언론인들이 효과적으로 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질적인 단계에서 언론인들은 자신들이 직접 갈 수 없는 지역(비용 또는 접근성 문제로 인해)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해당 지역 단체의 자체 연구물이나 단체의 현지 인맥 등 인권 단체에 의존한다.

언론인이 인권 단체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마곤은 언론이 의제를 설정하고 변화에 대한 압력을 유지하도록 힘을 배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많은 사건이 지역 차원에서 발생하기 때문



파크 대학교 평화세우기 컨퍼런스 중 지속적인 억압 상황에서의 언론의 역할에 대해 토론하는 루이스 디귀드와 베테 테이트 비버.

에, 언론의 개입 없이는 대중들이 그런 소식을 접할 방법이 없다. 최근에 미국에서 언론인들이 미 정부를 성공적으로 압박한 세 가지 상황이 있었다.

-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Zamal Khashoggi 암살에 관한 이야기는 인권 운동가들이 이용하려 했던 미국의 사우디 정부 지원에 ‘균열’을 일으켰다.
- 미얀마 로힝야족 탄압에 대한 보도가 수주에 걸쳐 계속된 결과 미국 정부가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 뉴욕 타임스 잡지에서 이라크 민간인 학살에 관한 표지 기사를 다룬 후, 미국 국방성과 의회가 이 문제를 인정했다.



자넷 재스퍼슨은 캔자스 시티의 존슨 카운티 커뮤니티 칼리지의 국제 교육 코디네이터다. 자넷은 미국 국경 너머의 세계를 대학생들에게 소개하는 일에 열정을 쏟고 있다.

인권 보도가 개인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마곤은 “미국 내 여론은 극도로 양극화되었지만, 진실의 위협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로 묶어 줍니다.”라고 말했다. 언론인들이 진실을 말해주면, 우리는 정보를 기초로 한 의견을 세우고 행동을 취하게 된다. 작가이자 강사이며 저자인 루이스 W. 디귀드Lewis W. Diuguid와 다문화 교육 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Multicultural Education의 이사 베테 테이트 비버Bette Tate Beaver는 사회의 ‘지속적인 억압’과 관련한 미디어의 역할을 살펴보면서 토론을 이어갔다.

그중 한 줄기는 뉴스룸에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2016년 ASNE 다양성 조사에 따르면, 미국 인구 3분의 1이 소수 집단이지만, 신문 기자 중 17%와 온라인 매체 기자의 23%만이 소수 집단 출신이었다. 그 결과, 언론인들은 유색 인종의 기회 격차 혹은 억압받는 사람들이 억압의 조건을 만들었다는 일반적인 믿음처럼 소수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종종 침묵하고 만다. 디귀드에 따르면, 언론인들이 위의 문제에 침묵할 때, 억압자들의 행동과 태도를 강화한다.

다음 쪽에서 계속

www.park.edu/peacecenter

저널리즘과 인권

10쪽에서

디귀드는 언론의 기능에 대해 발표하면서, 이러한 기능(감시, 상관관계, 전파, 오락, 경제)이 일부 소수 집단(아시아인, 아메리카 원주민)을 어떻게 보이지 않는 집단으로 만드는지, 그리고 동시에 다른 소수 민족(아프리카계 미국인, 라틴계 사람들)을 쓸모없는 사람, 즉, 주의 깊게 감시해야 하는 사람들로 강등시킬 수 있는지 토론을 벌였다.

모든 민족 여성은 도움이 필요한 숙녀이거나 감시해야 하는 의심스러운 인물(예: 힐러리 클린턴)로 표현된다.

그러나 백인 남성은 미디어의 모든 기능적 측면에 긍정적이고 눈에 띄게 등장한다. 언론인이자 잘 나가는 칼럼니스트인 메리 산체스Mary Sanchez는 다양한 뉴스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산체스는 라틴계 공동체 내의 ‘진짜 이야기를 해줄 인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년 동안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를 신뢰할 만한 자료 출처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산체스는 또한 언론인과 운동가 사이의 세밀한 경계를 살펴보면서, 좋은 오피니언 기사는 ‘단지 분노가 아니라 사실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표자는 북아일랜드 전국 언론인 연합National Union of Journalists의 전문 저널리스트이자 임원인

캐서린 존스턴Kathryn Johnston이었다. 존스턴은 북아일랜드 분쟁 보도가 “너무 이분법적이다. 피해자가 아니면 가해자”라고 비판했다. 이 접근법은 스스로 희생자가 되었던 가해자들의 역사를 무시하고 오랜 불평등의 역사를 간과한다.

존스턴은 언론인들이 이야기를 깊이 파고들지 않고 ‘번지르르한 인용구’에 머무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한탄했다. 또한 저널리스트들이 이야기가 주는 영향력에 민감하지 않으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다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이런 유형의 저널리즘은 ‘사람들에게서 인류애를 지워버린다.’ 존스턴은 북아일랜드의 평화 프로세스와 뉴스룸에서 여성이 배제되고 있으며, 이는 둘 모두에 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버지를 살해한 사람을 찾아냈던 평화를 위한 다리 놓기Building Bridges for Peace 창립자인 조 베리Jo Berry를 칭찬했다. 베리의 목적은 사과를 듣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다루는 저널리스트들이 취해야 할 접근 방식인 인류애를 보는 것이었다.

브렉시트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존스턴은 하드보더(역자주: 군인이나 경찰 등에 의해 관리되고 보호되는 국경)의 영향에 대해 논의

했다. 그는 브렉시트에 대한 가능성이 이미 폭력적인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드보더가 정해지면, 폭력이 재개될까 ‘두렵고’. 이미 지역 사회 전체가 폭력에 둔감해지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파크대학교의 글로벌 평화저널리즘 센터 소장 스티븐 영블러드Steven Youngblood는 모든 발표에서 공통으로 제기된 4가지 의견을 짚어내며 오후 세션을 마무리했다.

1. 저널리스트들은 이야기가 보도되는 방식을 통해 ‘사람들에게서 인류애를 지워버리는’ 일이 너무 잦다.
2. 저널리스트들은 대중의 관심을 끌 만한 이야기를 대중에게 알리고 관심을 유지시킴으로써, 인권을 신장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한다.
3.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말하므로, 언론인은 그러한 목소리들을 대변해야 한다.
4. 평화저널리즘의 원칙, 특히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부여하고 지배적인 문화가 발전시킨 내러티브에 반대 내러티브를 제공한다는 원칙은 효과적인 인권 보도에 필수적이다.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의 대외정책국장인 사라 마곤이 인권과 언론의 교차점에 대해 논했다. (사진: 존 호켄슨Jon Hokenson)

로HING야 보도, 평화저널리즘 접근 자주 무시해

샤뎀 아라 술리Shameem Ara Sheuli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평화와 갈등에 대한 비폭력적 해결을 촉진하는 데 가치가 있는 개념으로 평화저널리즘을 인정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신문사들은 수십 년 동안 미얀마-로HING야 분쟁을 보도하면서 전쟁저널리즘적 접근 방식을 따르고 있다. 신문에 실린 기사의 13.54%의 기사가 평화저널리즘을 따른 반면, 58% 이상이 전쟁 저널리즘 스타일을 따랐다. 이는 평화세우기 도구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관련 당사자가 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방글라데시의 언론인 샤뎀 아라 술리 Shameem Ara Sheuli는 노르웨이 학자 요한 갈통 Johan Galtung의 전쟁 / 평화저널리즘 모델에 이어 스완지 대학교Swansea University 석사 논문의 일부로 ‘미얀마-로HING야 갈등: 전쟁 저널리즘 또는 평화저널리즘?’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그는 가장 최근에 발생한 2017년 8월 25일의 폭력 사건부터 2018년 1월 23일에 로HING야 난민의 본국 송환 절차 연기가 있을 때까지 발간된 6개 영어 신문의 251개의 이야기를 분석했다. 6개 신문은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신문 각 2개, 중국과 인도 신문 각 1개씩이다.

샤뎀 아라 술리Shameem Ara Sheuli는 십년 넘게 방글라데시에서 언론인으로 일하고 있다. 언론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일하는 단체인 커뮤니케이션 연구소ICS의 창립 멤버이자 전 사무국장이다. 샤뎀은 에라스무스 문두스 저널리즘에서 전쟁과 갈등을 전공한 풀브라이트 장학생이다.



신문은 미얀마의 미얀마 타임스Myanmar Times와 미얀마 글로벌 뉴 라이트Global New Light of Myanmar, 방글라데시의 뉴 에이지 New Age와 데일리 스타The Daily Star, 중국의 글로벌 타임스Global Times, 인도의 힌두The Hindu다.

놀랍게도, 샤뎀의 연구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 신문의 전쟁/갈등 보도에 관한 평화저널리즘 이야기의 수는 감소한 반면, 전쟁저널리즘의 수는 증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의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카슈미르 분쟁, 스리랑카의 타밀 타이거 운동, 인도네시아의 말루쿠와 아체 분쟁, 필리핀 민다나오의 무슬림 분리주의 운동 분쟁 보도를 분석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30% 이상이 평화저널리즘을 따랐다. 이는 미얀마-로HING야 갈등 보도에서 발견된 최근 연구의 두 배 이상이다.

아라칸 로HING야 구원군Arakan Rohingya Salvation Army, ARSA의 북 라카인주 경찰 공격에 대한 미얀마군의 보복 공격에 따른 2017년 8월 25일 폭력이 발발한 후, 최근 연구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미얀마, 인도, 중국의 언론인들이 대부분 전쟁저널리즘적인 글쓰

기를 따랐으며, 이 추세는 2018년 1월 23일로 예정되었던 로HING야 난민의 본국 송환 절차 연기까지 지속되었다.

취재 기자들은 라카인 불교도와 소수 로HING야 무슬림 간의 증오, 인명과 재산 피해에 중점을 두고 미얀마군과 ARSA의 충돌을 묘사했다. 뉴스 기사는 보도 당시 북 라카인과 방글라데시 미얀마 국경, 콕스 바자르 난민 캠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폐쇄된 공간과 시간에 국한되었다. 보도에서 합의 또는 평화 이니셔티브 영역은 무시되었고, 현장 피해자와 군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언론은 2017년 11월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당국 사이에 체결된 합의의 결함을 논하는 대신 송환 절차에 대한 의혹을 표현하는 폭력과 불안을 강조했다. 술리의 연구는 막바지 단계에서 연기되어 여태껏 시작되지 않은 로HING야 난민 송환 절차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추측했다.

모순된 경향, 서로 다른 내러티브
이 연구는 두 미얀마 신문의 대조되는 경향과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언론에 돌고 있는 갈등 내러티브를 묘사하는 흥미로운 사실들을 몇 가지 발견했다.

다음 쪽에서 계속

www.park.edu/peacecenter

로HING야 보도

12쪽에서

미얀마 글로벌 뉴 라이트가 전쟁저널리즘적 보도의 선봉에 섰고, 미얀마 타임스는 다른 신문 보도에 비해 평화저널리즘 접근 방식을 더 보여주었다. 미얀마 국영 신문인 미얀마 글로벌 뉴 라이트의 보도는 정파성이 강했고, 민간 소유의 미얀마 타임스의 보도는 중립적인 입장을 띄었다. 두 방글라데시 일간 신문 모두 전쟁저널리즘을 구성하는 경향이 있고 평화저널리즘을 따르는 경향이 적다. 특히, 뉴 에이지는 6개 신문 중에서 가장 적은 수의 평화저널리즘적 기사를 다루었다. 중국 신문인 글로벌 타임스는 2번째로 전쟁저널리즘 경향이 강했고, 인도 일간지 힌두The Hindu는 가장 평화저널리즘을 따르지 않는 다른 신문 중 하나다. 이 연구에서 미얀마와 방글라데시는 싸움이 시작된 방식, 누가 주창자고 누가 적대자인지에 대해 다른 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뚜렷이 나타났다. 이 신문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만의 내러티브를 순환시키며 국가 정책에 동조했다.

중국 일간지 글로벌 타임스의 신문 보도는 친 미얀마 국가 정책을 반영한 미얀마 버전의 내러티브를 제시했다. 반면에 인도 일간지 힌두는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당국이 홍보하는 두 가지 내러티브를 균형 있게 다루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 미얀마 신문에서 ARSA는 싸움을 시작한 테러 조직으로, 로HING야는 ARSA의 공범자로 묘사되었다. 한편 방글라데시 언론은 로HING야족이 미얀마 당국의 오랜 차별과 박해의 피해자라고 지속적으로 보도했다. 미얀마 신문, 특히 미얀마 글로벌 뉴 라이트는 미얀마의 군사 캠페인을 정당화하기 위해 ARSA의 잔학성을 강조하며 로HING야를 ‘극단적 테러리스트’로 분류했다.

신문들은 라카인의 불교도와 힌두교 시민들의 고통을 강조한 반면, 로HING야 소수 민족에 대한 인권 침해는 무시했다. 미얀마 신문은 국제 사회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반대로, 방글라데시 일간지는 미얀마군과 라카인 불교도를 악당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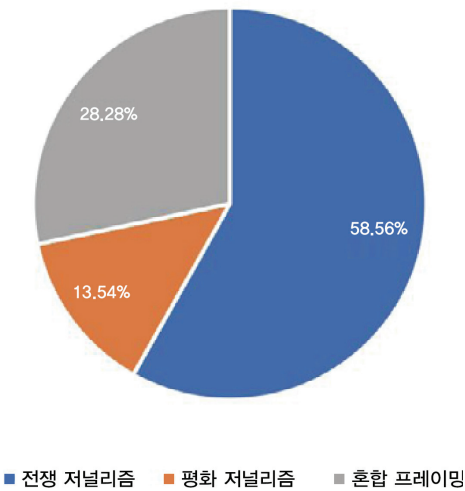
묘사하고, 로HING야 무슬림들을 공격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미얀마군을 지원한 미얀마 지도자 아웅산 수 치Aung Sung Suu Kyi를 비판했다. 어느 정도까지는 미얀마군을 도발한 것에 대해 ARSA를 나쁘게 그렸지만, 라카인의 로HING야인들을 일관되게 희생자로 묘사했다. 방글라데시 신문은 인도주의 단체들을 인용하여 로HING야인에 대한 미얀마군의 인권 침해를 강조했다. 또한 많은 기사는 방글라데시에 있는 난민의 고통을 다뤘다.

평화저널리즘이 사실을 밝힐 수 있을까?

이 연구에서는 6개 신문사의 미얀마-로HING야 갈등 보도 중 13%가 넘는 평화저널리즘 기사를 발굴했다. 연구자에 따르면, 해당 기사들이 평화저널리즘 개념에 걸맞는 정도의 힘 있는 언어를 사용하지는 못했으나, 대체로 평화저널리즘 때문에 언론인들이 대량 학살이나 인종 청소와 같은 강한 감정적 용어를 선택하지 않게 됐다고 주장했다. 더 심각한 사건을 위해 이러한 표현을 남겨놓았던 것이다.

라카인 로HING야의 최근 상황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사건이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미얀마에 있는 군대가 로HING야 무슬림에 대한 인종 청소 작전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콜로라도에 있는 디지털 글로브Digital Globe가 2017년 9월에 공개한 위성 이미지는 미얀

6개 신문사의 전반적인 뉴스 보도



■ 전쟁 저널리즘 ■ 평화 저널리즘 ■ 혼합 프레이밍

Peace, stability restored in northern Rakhine, troops withdrawn

LUN MIN MANG | 27 OCT 2017



A burning house in Bawdu Thara village, Mawngdaw township, Rakhine State. Lun Min Mang/The Myanmar Times

Islandow has withdrawn some of its troops in northern Rakhine State after peace and stability were restored in the area in the aftermath of the August 25 attacks, it said in a statement on Wednesday. The statement said Islandow had to "carry out peacekeeping operations" in response to the attacks launched by the Arakan Rohingya Salvation Army (ARSA) against 33 police outposts and an army unit base in Bawdu and Mawngdaw townships.

마 당국이 ARSA가 휴전을 선언한 이후에도 군사 작전의 일환으로 텅 빈 로HING야 마을을 불태웠다고 밝혔다.

국제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미얀마군의 작전이 인류에 대한 범죄이며 유엔 난민기구UNHCR는 라카인의 로HING야 무슬림에 대한 인권 침해가 인종 청소의 '교과서적 예'라고 주장했다. 유엔 인권 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의 조사에서 라카인 대량 학살의 증거가 발견되었다.

유엔 인권 이사회 보고서는 무차별적인 살해, 여성의 대규모 강간 및 아동 학대를 다뤘다. BBC 보도에 따르면, 조사관들은 2017년 8월 '라카인에서 국제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국경없는의사회MSF는 최소 6,700명의 로HING야족이 폭력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언론인들이 강한 언어를 사용해도 놀랍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미얀마 신문은 기사에서 로HING야 주민들에 대한 미얀마군의 인권 침해를 보도하지 않았다. 미얀마군과 ARSA 간의 싸움에서 붙잡힌 로HING야 시민들의 고통은 간과되었다.

로HING야들은 방글라데시로 도피하여 심각한 인도주의 상태에서 해외 원조에 의존한 채 난민 캠프에 살고 있다. 최근의 위기가 시작

다음 쪽에서 계속

된 이래로 50만 명이 넘는 로HING야인이 미얀마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의 난민이 되었다.

미얀마 신문은 미얀마 군대의 잔인함을 덮으려고 했던 것처럼 보인다. 또한 평화저널리즘의 모범 사례와 맞지 않는 사실을 밝히지 못했다. 르완다 대량 학살의 예를 들어 술리는 정확하게 보도하지 못하고 갈등 보도에서 강한 언어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술리는 쉼멜Schimmel의 연구에 따르면 그 결과는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 언론이 르완다 분쟁의 잔인함을 가리는 한편, 서방 언론은 대량 학살을 체계적이고 정치적인 인종 청소로 묘사하는 대신 ‘종족 전쟁’으로 경시했다고 언급했다. 술리는 이것이 국제 사회가 1994년 투치 인구 250,000명에 달하는 생명의 값을 치를 때까지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개입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라고 되짚었다.

희망은 여전히 있다

이번 연구에서 눈에 띄는 결과 중 하나는 미얀마 타임스가 75%의 기사에서 중립성을 보였고 많은 경우 정부의 지시를 무시한 것이다.

미얀마 타임스는 ARSA를 테러 조직으로 명명하지 않고, ARSA 구성원을 극단 테러리스트로 지칭하는 대신 ‘ARSA’ 및 ‘ARSA 전투병’과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 화제가 되고 있는 논쟁 중 하나인 로HING야족 지칭에서도,

‘로HING야’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벵갈리’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않았다. “국경없는기자회에서 언론의 자유가 미얀마 정부의 우선 순위가 아니라고 주장한 상황에서 미얀마 타임스의 조치는 용감했다.”고 술리는 덧붙였다.

References

Maslog, C.C., Lee, S.T. and Kim, S.H.(2006) ‘Framing Analysis of a Conflict: How Newspapers in Five Asian Countries Covered the Iraq War’, in *Asian Journal of Communication*, Vol.16, No.1, pp. 19–39.
Lee, S.T. and Maslog, C. C.(2005) ‘War or Peace Journalism? Asian Newspaper Coverage of Conflicts’, in *Journal of Communication*, Vol.55, No.2, pp. 311–329.
DW(2018) ‘Rohingya Crisis: Bangladesh Delays Repatriation of Refugees to Myanmar’ [Internet], 22 January, available from <https://www.dw.com/en/rohingya-crisis-bangladesh-delays-repatriation-/

of-refugees-to-myanmar/a-42252020> [Accessed January 2019]
HRW(2019) ‘Rohingya Crisis’, in *Website of Human Rights Watch* [Internet], 1 May, available from<https://www.hrw.org/tag/rohingya-crisis> [Accessed May 2019]

UN(2017) ‘UN Human Rights Chief Points to Textbook Example of Ethnic Cleansing in Myanmar’, in *UN News*,[Internet], 11 September, available from<https://news.un.org/en/story/2017/09/564622-un-human-rights-chief-points-textbook-example-ethnic-cleansing-myanmar>[Accessed May 2019]

BBC(2018) ‘Myanmar Rohingya: What You Need to Know About the Crisis’, [Internet], 24 April, available from <https://www.bbc.co.uk/news/world-asia-41566561> [accessed 12 January 2019]
Schimmel, N.(2011) ‘An Invisible Genocide: How the Western Media Failed to Report the 1994 Rwandan Genocide of the Tutsi and Why’, i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ights*, Vol. 15, No. 7, pp.1125–1135.

RSF(2018) ‘Aung San Suu Kyi’s Shocking Betrayal’, in *Website of Reporters Without Border* [Internet], available from <https://rsf.org/en/myanmar > [Accessed May 2019]

The Daily Star

Friday, February 7, 2020 | YOUR RIGHT TO KNOW

NEWSPAPER BUSINESS OPINION SPORTS A & E LIFESTYLE TOGGLE SHOWBIZ SHOP
EPAPER ALL SECTIONS

Home » Front Page

12:00 AM, August 28, 2017 / LAST MODIFIED: 03:03 AM, August 28, 2017

Rohingyas pouring in

Hundreds cross border points in Teknaf, Ukhaia, Naikhyangchhari; scores wait on no-man’s land

Star Report

Hundreds of Rohingyas entered Bangladesh through different unguarded border points of Ukhaia, Teknaf and Naikhyangchhari yesterday while hundreds more took shelter on no man’s land after failing to cross the border.

Although Border Guard Bangladesh (BGB) and the local administration denied entry to Rohingyas, residents and elected representatives in those areas said refugees were coming through six unprotected points.



Rohingya families crossing the border to escape persecution are lodged in a makeshift camp in Chumdioun point in Cox’s Bazar. Families were seen with bottles of water, polythene sheets and other basic essentials as they entered Bangladesh. Photo: Anisur Rahman

신간 소개

좋은 저널리즘이란 바로 이것:
문제 너머를 보도하는 것의
이론, 실천과 영향

랭 출판사, 2020년 여름 출간 예정

카렌 맥린터, 니콜 다멘 편저

이 책은:

문제를 강조하는 뉴스 매체가 대중과 언론 자신, 민주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는 전문가의 주장을 담았다. 이 책은 사회적-책임을 지는 뉴스 보도 실천 사례를 심도 깊게 탐구한다. 각 장은 학자와 현장 전문가들의 보도 형식과 보도 정의 및 변화 과정, 현상을 자세히 서술한다.

각 장은:

건설적인 저널리즘
시민 저널리즘
참여 저널리즘
관계 저널리즘
실험 저널리즘
해결 저널리즘
평화 저널리즘을 담았다.

www.park.edu/peacecenter

세계 포럼 패널들, 허위 정보에 맞서다

스티븐 영블러드

허위 정보가 세계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에는 팩트체크, 문맹 퇴치 프로그램, 평화저널리즘으로 허위 정보와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허위 정보 방지 노력은 지난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 후원 민주주의 세계 포럼Council of Europe-sponsored World Forum for Democracy의 일부인 ‘진실 혹은 거짓 Mythbusters’세션에서 자세히 논의됐다. 지난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나는 ‘허위 정보, 민주주의, 평화저널리즘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나는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거짓, 반쪽 진실, 비이성적인 내용을 사용한다는 의미인 허위 정

보를 정의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우리는 그 목적(주의 분산, 진실을 모호하게 함, 행동 유도, 정보 환경 조성)과 특성(사회 내부에 이미 존재하는 분열과 편견을 대상으로 할 때 가장 효과적임)에 대해 논의했다.

미디어에 대한 신뢰가 낮고, 소비자가 자신의 편견을 확증하는 정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허위 정보가 성공하게 된다. 그런 다음 평화저널리즘이 어떻게 허위 정보를 반박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인지 이야기했다. 첫째, 전 세계 수백 개의 세미나에서 가르치는 평화저널리즘 원칙은 당사자들을 연합시키고자 하고(허위 정보는 분열시킴), 신중하게 언어를 선택하고(허위 정보는 선정적,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 고정 관념을 폭로하는 반박 내러티브를 제공하는 등 허위 정보와 상반된다(반면 허위 정보는 고정 관념에 의존하고 강화한다). ‘진실 혹은 거짓’ 세션 발표자 중 인도의 안나 대학교Anna University의 스리람 아룰첼



공식 행사에 사용되는 스트라스부르 옛 시청 공간에서 열린 ‘진실 혹은 거짓’ 세션

Vol 9, No. 1

2020년 4월호



오스틴 아우베Austin Augbe(우)가 민주주의 세계 포럼에서 나이지리아에서 허위 정보 대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반Sriram Arulchelvan 교수가 있었다. 아룰첼반 교수는 고등학생들이 가짜 뉴스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준 안나 대학의 미디어 정보 및 문해력 프로그램에 대해 발표했다.

나이지리아 민주주의와 개발 센터Nigerian Centre for Democracy and Development의 오스틴 아우베Austin Augbe 센터장은 나이지리아에서의 허위 정보에 맞선 사례를 발표했다. 그는 나이지리아에서 민주주의가 ‘붕괴 위기’이며, 허위 정보가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 센터는 팩트체크, 500명의 팩트 체크자 훈련, #StopFakeNews 캠페인 확산, 가짜 뉴스 연구 수행을 통해 허위 정보 방지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 다음 베아트리체 시몬치니Beatrice Simoncini가 허위 정보에 대한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시몬치니는 이탈리아로 둘러싸인 33,000명의 작은 나라, 산마리노 정부의 대변인이자 허위 정보 실무자 그룹 일원이다. 실무 그룹의 노력에는 회의 소집, 허위 정보와 싸우는 단체 간의 협력 촉진, 학교에서의 미디어 문맹 퇴치 프로그램 후원 등이 포함된다. 세션은 티투스 알렉산더Titus Alexander와 매튜 골로지아Matthew Golozia의 응답으로 마무리됐다.

알렉산더는 대학들이 허위 정보와 싸우는 길을 이끌고 민주주의를 위한 ‘정보기관’으로서 행동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기에는 이야기를 바꾸는 것(평화저널리즘 용어로는 반박내러티브), 권력에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따르는 것이 포함된다. 골로지아는 모든 사람이 정보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 제공자와 핸드폰 회사에 대한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진실 혹은 거짓’은 공식 행사와 결혼식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스트라스부르 옛 시청의 한 공간에서 열렸다.

평화저널리즘, 캘리포니아에서 로터리 평화 이니셔티브를 논하다

스티븐 영블러드

캘리포니아 온타리오에서 2020년 1월 개최된 로터리 세계 평화 회의Rotary World Peace Conference 참석자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나는 여러 감정을 느꼈다. 사실 나는 세상을 괴롭히는 갈등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떠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나는 세계 평화를 위해 로터리 사람들과 그 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놀라운 일에 고무되고 영감을 받은 채 집으로 향한다. 평화저널리즘의 기초에 대한 나의 발표는 이런 이분법이 특징이다.

발표는 낮은 언론 지지율과 전문성을 갉아먹는 해악에 관한 토론으로 시작됐다. 그런 다음 평화저널리즘 그리고 좋은 저널리즘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평화에 도움이 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평화저널리즘의 능력을 설명하며 이야기를 희망적으로 전환했다. 다수의 청중은 높은 참여도를 보이며 발표 도중과 이후에 날카로운 질문을 퍼부었다. 한 참석자는 누구나 평화저널리즘을 실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나는 가디언the Guardian, 니콜라스 크리스토프Nicolas Kristof, 카메룬과 우간다의 많은 라디오 기자를 긍정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내가 언급한 여러 주제가 컨퍼런스의 다른 발표에서 언급되는 것이 흥미로웠다. 여기에는 ‘우리 대 그들’ 구조를 거부하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포함된다.

다른 발표들도 놀라웠다. 아짐 카미사Azim Khamisa의 아들은 25년 전 갱단원들에게 살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열린 세계 로터리 평화 컨퍼런스의 본회의 첫째날

해당했다. 보복 대신, 카미사는 타릭 카미사 재단Tarik Khamisa Foundation을 설립하고 청소년 폭력 사이클을 끊는 데 몰두했다. 아짐 카미사는 천명에 달하는 참가자들에게 ‘마음이 무너지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건 없다. 하지만, 상처 받은 마음이 공감과 연민을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열린 마음’이라고 말했다.

아이라 헬펀드Ira Helfand박사는 핵전쟁의 잠재적 공포와 모든 핵무기를 제거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헬펀드 박사는 참석자들에게 핵 금지를 위한 로터리 그룹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헬펀드가 조직한 핵무기 폐기 국제 캠페인ICAN, the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은 2017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파짐 알비Fazim Alvi 박사는 니는 미얀마의 로힝야 대량 학살에 대한 끔찍하고 비극적인 이야기는 참가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알비 박사는 로힝야 난민을 수용하는 방글라데시 난민 캠프에서 의료 임무를 수행했다. 난민 캠프의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상황, 캠프에서 만난 아이들의 얼굴들은 보리에 서 떠나지 않았다. 끝까지 이름을 물어보지 못해서 그냥 ‘울고 있는 여자아이’라고 불렀던 아이도 어른거렸다. 알비 박사는 “아직도 그 꼬마의 아픔이 느껴져요. 그 아이의 눈이 불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얼굴이 제가 이 활동을 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는 컨퍼런스 참가자들이 미얀마 정부가 대량 학살을 끝내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평화를 위해 일하는 수십 명의 로터리 회원들의 사례가 발표됐다. 호주 로터리 회원 하디프 기린Hardeep Girin은 NGO와 고객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이야기가 담긴 비디오를 NGO에 무료로 제작해 주는 ‘월드 메이드 굿World Made Good’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특유의 긍정적 에너지를 가진 바바라 물러Barbara Muller는 피스팟캐스트닷오알지(peace-podcast.org)라는 자신의 이니셔티브

를 소개하고, 청중들에게 자신만의 평화 팟캐스트를 시작하라고 제안했다. 또한 평화를 위한 로터리 E-클럽(www.rotaryclubofworldpeace.org)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E-클럽은 세계가 당면한 문제와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와 피스빌더가 한데 모이고, 각 회원이 가정과 학교에서 평화를 만들도록 돕고 있다. 또한 세계와 각자의 일자리에서 평화를 지지하는 사람이 되고, 다른 종교 및 모든 다른 것에서 이해와 협력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 전시장에서는 수십 명의 로터리 회원들과 그 외 참석자들이 자신들의 프로젝트에 대한 브로셔를 활발히 공유했다. 이들 프로젝트에는 러-미 프렌드십 이니셔티브Russia-U.S. Friendship initiative; 깨끗한 물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 오픈 월드Open World 교류 프로그램, 로터리 말라리아 심포지엄Rotary Malaria Symposium;영양실조와 싸우는 땅콩버터 프로젝트Project Peanut Butter to battle malnutrition; 인신매매 반대 NGO인 케룻Kherut; 가정 안전을 위한 로터리안 액션 그룹the Rotarian Action Group for Family Safety; 평화를 위한 관계 만들기Creating Friendships for Peace;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젊은이들의 연합을 위한 이니셔티브, 핸드 오브 피스Hands of Peace; 프리 휠체어 미션the Free Wheelchair Mission 및 평화를 위한 로터리안 액션 그룹the Rotarian Action Group for Peace(https://www.rotarianactiongroupforpeace.org)이 있었다.

이번 컨퍼런스는 피스빌더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는 한편,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준 귀중한 기회였다.



카메룬,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시작하다

타랑 에노우비카 타베Tarhyang Enowbikah Tabe

카메룬 커뮤니티 미디어 네트워크CCMN, The Cameroon Community Media Network가 전국 코디네이터를 임명하는 것으로 공식적인 전국 네트워크를 시작했다. 로즈 오바 아카Rose Obah Akah는 부에아Buea에서 진행된 네트워크 성장을 위한 중요 워크숍에서 카메룬 커뮤니티 미디어 네트워크의 첫 전국 코디네이터로 임명되었다. 이제 CCMN은 8개 지역의 8개 지사를 둔 전국구 네트워크가 됐다.

지역 코디네이터도 임명되었다. 카메룬 커뮤니티 미디어 네트워크는 수많은 언론인을 대상으로 평화저널리즘과 갈등 해결/전환을 교육하고 있다. 부에아에서 온 보고에 따르면, 로즈는 2년 동안 네트워크를 조정하고 전국 선거를 조직하는 임무를 맡았다.

로즈는 지역 사회 커뮤니케이션 및 평화세우기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인물로, 임명에 대해 기쁨과 열정으로 반응했다. 로즈는 임명 전까지 북서부와 서부 지역 네트워크의 코디네이터였으며, 제랄딘 포바Geraldine Fobah 목사는 UNCHRDthe United Nations Centre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중앙 아프리카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및 상주 컨설턴트에 중점을 두고 시민 사회 일들을 조정해왔다.

로즈 오바 아카는 누구?

로잘린 오바 아카Rosaline Obah Akah는 2005

타랑 에노우비카 타베Tarhyang Enowbikah Tabe는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훈련된 저널리스트이자 개발 커뮤니케이터다. 어드보케이트 신문, 시민사회를 위한 카메룬 파이오니어 언론 단체,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위한 시민사회의 발행인이자 CEO다. UNCHRD 중앙 아프리카의 상주 컨설턴트이기도 하다.



최근 열린 워크숍에서 CCMN 회원들과 만나고 있는 로즈 오바 아카

년에 카메룬 부에아 대학교the University of Buea에서 저널리즘 및 대중 커뮤니케이션/여성 젠더학 학위를 취득했다. 로즈는 전문 커뮤니케이터이자 피스빌더다. 로즈의 열정과 ‘해보자’라는 정신 덕분에 북서부 카메룬 장로교회PCC, the Presbyterian Church in Cameroon의 지역 커뮤니케이션 비서관으로 임명된 바 있다.

일에 대한 헌신과 뛰어난 성과를 눈여겨 본 카메룬 장로교회가 2016년에 기독교 방송 서비스CBS, the Christian Broadcasting Service 라디오 바멘다 방송국 관리자로 로즈를 지목하기도 했다. 또한 북서부 카메룬 영어권 언론인 협회 회장을 2018년 10월까지 두 차례 연임했다. 현재는 북서부 저널리즘 협회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8년에는 카메룬 커뮤니티 미디어 네트워크 북서부 및 서부 지부장으로 선출되었으며, 몇 개월 후 현재 60명 이상의 언론인이 보도를 통한 지역 사회 평화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카메룬 장로교회 평화저널리즘 프로젝트the Peace Journalism Project의 관리자로 임명됐다. 로즈는 미디어 컨설턴트이자, 평화저널리즘, 갈등 전환, ‘두노함Do No Harm’ 교육진행자 및 선거 보도 트레이너;

평등한 젠더 및 인권을 위한 촉진자이자 옹호자다.

수상 경력

2019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로즈는 지난 몇 년 동안의 평화세우기 및 지역 사회 개발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2개의 상을 받았다.

평화세우기 및 지역 사회 개발 분야에서 로즈의 활동은 지역, 국가 및 국제 미디어에서 동등하게 인정됐다. 로즈는 갈등 전환, 인권, 디지털 권리, 소셜 미디어의 책임 있는 사용, 스트레스 관리, 자원봉사, 비폭력 커뮤니케이션, 중재, 인도주의적 보도,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기타 평화 및 지역 사회 개발 관련 영역에서 활동하는 수백 명의 청소년, 남성 및 여성, 미디어 회사 및 실무자, 시민 사회 및 종교 지도자를 교육했다.



만화책으로 보는 ‘전쟁의 과제’

라리사 에팻코 Larisa Epatko

다섯 아이를 둔 소말리아인 엄마는 남편이 부상으로 더 이상 일할 수 없자 스스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콩고민주공화국의 한 남자아이는 자기 아버지의 죽음에 복수하기 위해 무장단체에 가입했다가 폭력적인 삶 이후 다시 사회에 복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배우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는 피스디렉트의 새로 나온 만화책 ‘전쟁의 과제 The Challenges of War’에 소개된 실제 이야기다.

공동 테마: 어떻게 하면 지역 사회의 평화 세우기 단체들이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직업 교육 및 다른 종류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지도. 소말리아에서 아얀은 피스디렉트의 지역 사회 파트너인 사회적 삶과 농업 발전 단체 Social life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Organization: SADO의 지원으로 의류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이어서 피스빌더들은 종종 그들의 일이 어렵고 복잡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고 말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로 우리는 다른 독자들에게 다가갈 기회를 잃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복잡하다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그냥 관심을 꺼요. 당신은 이야기를 과도하게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만화책은 그런 복잡성을 줄이는 방법이 되고 폭력 갈등이, 그리고 평화세우기의 미래가, 개인과 가족, 그리고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보여준다. 매튜는 “만화는 모든 걸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엄청나게 풍부한 맥락을 전달하죠.”라고 말한다. 예를 들면 길, 사람, 상징과 같은 이미지는 이야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을 만화책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미지로 말이죠. 폭발이나 죽음을 보여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적당히 흡수할 수 있을 만큼 만요.” 다른 도구

를 사용하는 것,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피스디렉트 팀의 새로운 도전이었다. 피스디렉트가 가진 타 국가 지역 사회 평화세우기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는 만화 속 대상을 모색하고 인터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피스디렉트는 해당 만화를 그릴만 한 지역 예술가들을 고용하고자 했고, 마침 아주 유능한 콩고 일러스트레이터 패트 마시오니 Pat Masioni를 찾았다.

만화 형식의 기사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했다. 정책가들의 책상 위에 읽지 않은 채로 쌓여 있는 길고 딱딱한 기사들이 얼마나 많을까? 많은 사람들은 이런 기사들 보다 만화를 구독할 확률이 더 높다. 이 만화책을 학교에 배포하면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다른 나라의 삶을 배우고 지역의 평화세우기 활동을 배울 수 있다. 아직 어린 독자들 때문에 전쟁을 현실성 있게 묘사하는 것과 시각적으로 창조적인 것 사이의 균형 유지가



피스디렉트의 만화책, 콩고민주공화국(위)와 소말리아(왼쪽)

라리사 에팻코 Larisa Epatko는 국제 비영리 단체인 피스디렉트 Peace Direct의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



장이다. 이 단체는 갈등 지역의 풀뿌리 피스빌더들을 지원하고 있다. 라리사는 PBS 뉴스아워 NewsHour에서 국제부 기자이자 프로듀서로 일했다.

어려웠다. 만화책의 독자는 다양하다. 그러나 만화 속 이야기들은 직업을 찾으려는 사람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이다. 어느 나라에 사는 사람이든지, 아얀과 램바카의 이야기가 전하는 인간 본성의 회복탄력성과 평화세우기 정신은 유의미하다.

이다음은 무엇일까? 피스디렉트는 학생, 입법가, 정책가, 기부자, 만화에 나온 것처럼 폭력에 영향을 받은 공동체들에 만화책을 배부함으로써 이 만화책이 어떠한 반향을 일으킬지 직접 반응을 얻고자 한다. 피스디렉트 웹사이트에서도 만화를 볼 수 있다. “평화세우기에 대한 몇 사람의 대화를 주류의 대화로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아, 평화세우기가 필요한 이유를 알겠어’라고 말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라고 매튜는 설명했다. “소말리아에만 이런 시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예요. 미국, 영국, 모든 공동체에 필요해요.”

피스디렉트는:

피스디렉트는 런던에 있는 비영리 단체며 워싱턴 DC에 지사를 두고 있다. 갈등이 있는 지역에 풀뿌리 피스빌더들을 지원하고 있다.

루이자 에스더 무가보Louisa Esther Mugabo

콩고민주공화국DRC 동쪽 북키부North-Kivu 주 수도 고마Goma의 좋은 호텔에서 다니엘 세마시Daniel Shematsi와 나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세마시는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사는 언론인의 삶을 풀어내기 시작했다.

세마시는 매일 순찰하는 UN 헬리콥터의 소음이 멎기를 기다렸다가 고개를 들고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라디오에 메시지를 내보낼 의무가 있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요.”

세마시는 북키부 남부지역인 마시시Masisi

“요즈음 언론인들을 좌지우지하는 건 국제기구들이예요. 적어도 돈이 나오는 곳이지요. -패트릭 스기라

서 독일 국제협력공사GIZ의 재정 지원을 받아 열리는 트레이닝에 참여하고 있다. 국제단체들은 북키부에서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세미나를 자주 개최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지역 언론인들은 지속적으로 교육받고, 그렇게 습득한 새로운 지식을 자신들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확산시킬 것이라 기대된다. 이제는 국제기구들이 라디오 쇼의 내용을 지시하고 있고, 교육에 가치를 더 두는 현실 때문에 언론인들이 워크숍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지만, 그것이 유일한 요인은 아니다. 자금이 부족한 환경에서 이 같은 워크숍들을 자금 조달의 한 형태로 보는 사람들도 많다.

루이자 에스더 무가보Louisa Esther Mugabo



는 에라스무스 문두스 저널리즘과 스완시 대학교의 공동 석사과정생으로 갈등과 전쟁 보도를 전공하고 있다. 르완다와 콩고민주공화국, 브룬디의 언론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설명하는 여러 내재적인 요인들이 있다. 첫째, 숙박, 음식이 제공되고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고정 수입 없이 일하는 언론인들에게 이점이다. 둘째, 북키부에서는 이른바 교통비frais de transport가 일반적인 관례다. 교통비는 참가자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 경비를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게다가 워크숍에 참가한 모든 언론인은 이동 거리에 상관 없이 같은 액수를 받는다. 셋째, 이 같은 워크숍은 문제 지역에서 국제기구들이 자신들의 활동에 관해 일종의 기사 형식으로 제공하는 ‘공개 보고서publi-reportages’ 배포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지역 라디오 방송국은 이러한 기사를 홍보물로 명시하지 않고 유익한 저널리즘으로 포장하여 방송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다. 대부분 이 같은 방송국들의 목표는 평화와 발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려는 언론인들의 목표와 일치한다.

그러나 북키부 러트슈루Rutshuru 지역 출신 언론인 패트릭 키로하 스기라Patrick Kiroha Sugira는 이런 상황에 비판적이다. “요즈음 우리 언론인들을 좌지우지하는 건 국제기구들이예요. 적어도 돈이 나오는 곳이지요.” 동 콩고 지방에서 국제기구들과 지역 언론인들 사이의 상호의존성은 복잡한 문제이며 이 때문에 자주 저널리즘 기준이 훼손된다. 여기서 저널리즘 기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이 알아야만 하는 건 마사시의 저널리즘은 고마의 저널리즘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르완다, 프랑스 혹은 어느 곳 하고도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마시의 말이다. 세마시는 슬픈 눈으로 컵을 보

다가 설탕을 네 손가락 털어 넣으며 이 말을 덧붙였다. “우리 지역에서 저널리즘은 또 다른 현실입니다. 완전히 다른 현실이에요.”

현실은 끊임없는 위협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쟁으로 갈기갈기 찢긴 지역에 사는 시민이라면, 무장한 반란군의 야간 공격을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언론인들은 더 큰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그들이 보도하는 정치인, 군인, 교회 구성원, 시민, 반란군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위협은 굉장히 현실적이다. 세마시는 무장한 남성이 마사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 들어와 아내와 아기 앞에서 본인을 죽이겠다고 위협했던 일을 떠올렸다. “만약 특정 이슈를 계속 보도한다면 나를 죽일 거라고 말했어요.” 세마시는 라디오 저널리즘에서 평화를 위한 사명을 다시 시작하기 전까지 생존을 위해 한동안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직장을 그만뒀야 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세마시는 북키부의 언론인들이 ‘객관성’과 ‘중립성’과 같은 저널리즘의 핵심 원칙을 성실히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이 단지 희망 사항으로 남을 때가 많다. 안전에 대한 위협 외에도 북키부 언론인들이 대처해야 하는 실질적인 문제들이 있다.

북키부 언론인들은 정보 접근성이 낮다. 정보 접근성은 객관적인 보도 생산을 위해 언론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렇지만 이른바 ‘1차’ 정보는 정치인들이 만나고, 국제기구가 기반을 두고 있으며, 기자 회견이 열리는 고마에서만 접근 가능하다. 세마시 같은 언론인들이 정기적으로 고마에 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수정되었을지도 모르는 간접 정보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게다가 마사시 중심지에 있는 세마시의 스튜디오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날은 손에 꼽는다. 다른 지역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컴퓨터, 녹음기, 카메라 등의 기본

다음 쪽에서 계속

장비들도 북키부에서는 쉽게 구할 수 없다. 서부지역 월리칼Walikale의 언론인 앤더슨 음볼라Anderson Mbula는 “사실상 우리는 모든 기술 장비를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작업을 잘할 수 있는 어떤 기술 자재나 기반 시설을 얻을 방법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언론인들은 현대 뉴스 수집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상상만 할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세마시와 그의 동료들은 ‘객관성’과 ‘전문성’이라는 모토 아래 국제 저널리즘 기준을 성실히 따르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 부딪혀 다른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 적응해야만 합니다.” 세마시는 단호히 이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살아남아야만 합니다.”

왜 세마시는 저널리즘을 포기하지 않을까? 북키부의 저널리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요 문제점을 단칼에 해결할 방법은 없어 보인다. 끊임없는 탄압,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부상이나 부당한 투옥의 위협 등의 직접적인 생존 문제 외에도 북키부 언론인들을 위한 공식 재정 지원이 부재한 현실 때문에 언론인들의 경제적 생존도 어려워졌다.

또한 콩고민주공화국에는 언론과 언론인에게 걸림돌이 될 만한 법률이 1981년 제정 이래 해묵은 법적 기준만 제시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정치인과 관련된 청년들이 정치 선전 유포를 위해 ‘의도치 않게 언론인’이 되어 여러 언론의 독립성이 사라지고 있다. 한마디로 열악한 장비와 기반 시설, 기술 그리고 정보 접근성 부족이 북키부 저널리즘의 전문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세마시는 한 번도 저널리즘을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내 공동체를 돕는 일을 그만둘 수 없습니다.” 세마시는 자신이 입증된 정보



와 교육을 라디오를 통해 제공하며 현장에서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촉진자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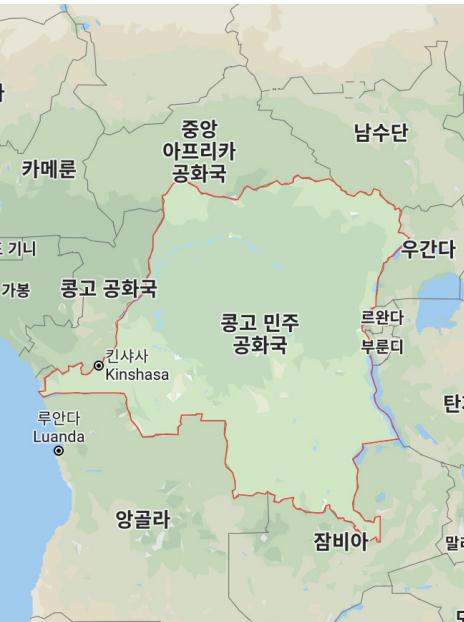
평화를 위한 저널리즘 활동 북키부에서는 개념으로서의 저널리즘과 행동주의를 이론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한편으로 검증된 정보를 보급하고 대중을 교육하는 일은 불만에 대응하거나 변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정치 수단으로 억지로 해석할 필요 없는 저널리즘의 특성이다. 동시에 이것이 행동주의의 핵심이기도 하다.

또 다른 한편으로, 지속적인 위협과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지역 맥락을 고려했을 때, 라디오 방송을 통해 마사시와 그 외 지역의 평화로운 발전에 공헌하고자 하는 세마시의 의지는 상황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에 대항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 또한 행동주의로 정의 내릴 만한 부분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이 필요하다. 북키부에 관한 연구와 보도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은 저널리즘과 행동주의, 개발원조 사이의 명확한 차이가 아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나서 며칠 뒤, 세마시는 마사시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언덕의 나무 벤치에 앉아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자신의 사진을 보냈다. 사진 속의 웃는 얼굴들은 평화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사진 뒤에는 못다 한 이야기가 있다. 평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송 장비로, 세마시는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된 이유를 듣기 위해 이를 동안 풀썩을 걸어 아이들을 만났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세마시는 저널리즘 활동으로 인한 삶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터전 마사시를 탈출해야만 했다. 세마시는 현재 고마에서 지낸다. 직업이 아닌 소명으로서의 저널리즘을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

세마시의 이야기는 맥락이 전부라는 것, 그리고 저널리스트가 되기 위해 ‘두루 적용되는’ 모델은 없다는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킨다. 세마시와 이 같은 언론인들에게 그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도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생사를 가르는 사건이 될 수 있다. 세마시는 아이들의 사진을 보내며, 결국 이런 결론을 내렸다: ‘북키부 미디어에서 질문을 포기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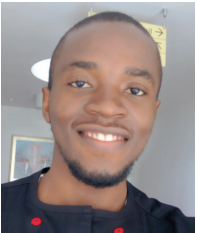
나이지리아 언론, 종교적 반감을 사다

이노센트 이로아가나치Innocent Iroaganachi

나이지리아가 오랫동안 종교와 인종에 따라 분열된 국가로 남아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나라에서는 종교와 인종의 대립이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많은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이지리아 언론은 선정적인 보도로 아슬아슬한 공존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2020년 2월 4일, 나는 일부 나이지리아 국영 신문과 온라인 뉴스 1면을 읽었다. 아래와 같은 헤드라인들이 눈에 띄었다.

1. 데일리 트러스트 신문, ‘인권 단체 MURIC(무슬림권 신장 운동, The Muslim Rights Concern)’ 기독교 자살 폭탄 테러범 체포는 CAN(나이지리아 기독교 연합, Christian Association of Nigeria) 시위를 조롱하는 것’
2. 인디펜던트 신문, “MURIC, 경찰의 ‘기독교 자살 폭탄 테러범’ 체포 환영. CAN 시위 직격타.”
3. 더 네이션, ‘MURIC, 자살 폭탄 용의자 나다니엘 사무엘 체포는 기독교판 보코하람(나이지리아의 이슬람 무장단체)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
4. 데일리 포스트, “부하리 보좌관 오노치 Onochie, 리빙 페이스 교회 폭파범: 나다니엘 사무엘, 나이지리아의 첫 기독교 테러리스트 아니다”
5. 펀치 신문, “CAN, 카두나 폭탄 테러 용의자가 자신의 이름이 사무엘이 아니라 모하메드라고 알려졌다.”
6. 레짓 Legit, “카두나 폭탄 테러범: MUR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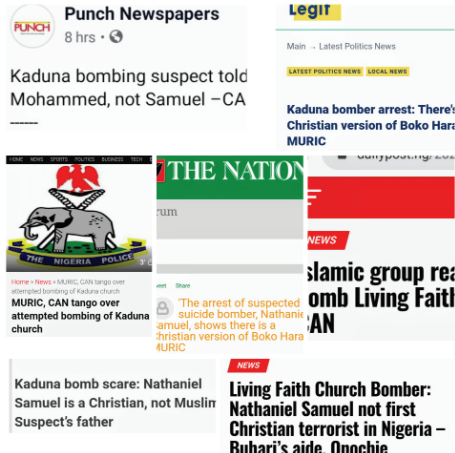
이노센트 이로아가나치Innocent Iroaganachi는 나이지리아에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이자 실무자이다. 이로가나치는 세계 가톨릭 커뮤니케이션 협회SIGNIS, the World Catholic Association of Communication와 팩스 크리스티 인터내셔널YPJ - PCI,Pax Christi International과 일하는 회원이자 자원 봉사자다.

- 체포는 기독교판 보코 하람이다.”
7. 데일리 트러스트, “카두나 폭탄 테러 공포: 용의자 아버지, 나다니엘 새뮤얼은 무슬림이 아니라 기독교인”
 8. 뱅가드 신문, “MURIC, CAN 카두나 교회 폭격 미수에 어깨춤.”

이러한 뉴스들은 독자들이 테러 범죄 혐의보다 용의자의 종교를 놓고 더 논쟁하도록 만드는 데 성공했다. 가디언지의 사실은 위와 같은 저널리즘 접근법이 가진 문제점을 요약했다. 크리스핀은 ‘저널리즘은 우리를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점점 말도 안 되는 수사학적인 사실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스 네트워크와 그것을 대표하는 모습들은 우리가 신뢰를 되찾는 데 도움이 거의 되지 않아요. “뉴스가 사실에 집중한다는 것이 대중을 가르치고 상처와 증오를 만들 수 있는 관점에 힘을 실어준다는 의미는 아니다. 의도적인 분열 프레임들 둔 헤드라인을 훑어보는 것 만으로도 기독교인이나 무슬림처럼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독자들이 받는 영향은 명백하다.

나이지리아 언론은 언제까지 종교 간의 갈등을 계속 퍼뜨릴 것인가? 우리는 계속 평화를 대가로 이런 뉴스 프레임을 선호할 것인가? 언론, 특히 종이와 온라인 플랫폼은 갈등의 시기에 대중을 지속적인 공동의 명분으로 통합하고 유도해야 하는 역할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 대신 우리가 보는 것은 선정주의sensationalism다.

나와 협력하는 몇몇 언론 조합에 평화에 기반을 둔 저널리즘을 제안하려 노력하고 있다. 평화저널리즘은 나이지리아가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기초가 아니라는 주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들이 평화저널리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은 평화저널리즘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병폐를 보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완전히 틀린 견해다. 나아가, 모든 언론 전문가와 실무자들은 편집자들이 항상 뉴스가 될 사건들을



뉴스 가치, 사내 규칙, 윤리적 기준에 따라 의도적으로 선택하려 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린치와 맥골드릭(2005)은 평화저널리즘을 ‘편집자와 기자들이 무엇을 보도하고, 어떻게 보도해야 하는지 선택할 때, 사회 전반이 갈등에 대한 비폭력적 반응을 고려하고 가치를 둘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런 종류의 저널리즘은 언론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갈등 보도를 잘못 다루는지 살펴본다는 면에서 갈등 보도에 가장 적절하다. 나이지리아 언론사들은 여론을 자극하기 위해 갈등을 조작하는 것이 분열에 일조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언론이 이미 긴장된 상황을 의도적으로 과열시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행정, 입법, 사법에 이른 네 번째 권력으로 여겨지기 힘들다.

오히려 언론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병폐를 노출시키고, 사회의 완전한 공존을 해치는 병폐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평화저널리즘의 원칙에 따라 나이지리아 언론은 갈등 보도를 통해 시민들이 서로를 가르치는 것보다 하나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스페인 이니셔티브가 되찾은 베네수엘라의 목소리

메이라 암브로시오 라레도Mayra Ambrosio Laredo

스페인의 한 평화저널리즘 프로젝트는 유럽으로 망명하여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은 젊은 베네수엘라 사람들의 목소리를 찾았다. 올해는 62명의 베네수엘라 젊은이들이 스페인 마드리드의 유니버시아드 프란시스코 데 비토리아UFV에서 공부하고 있다. UFV 동문회인 평화통신원Corresponsales de Paz와 UFV 저널리즘 전공 학생들이 망명한 베네수엘라 학생들의 어려움을 조명하는 새로운 웹 다큐멘터리(http://bit.ly/VenezuelaenlaUFV)와 비디오(https://www.youtube.com/watch?v=HILr4K1T8)를 제작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 평화통신원은 UFV 캠퍼스를 누비며 여기서 공부하는 62명의 베네수엘라 학생 중 6명의 목소리를 담았다.

시청자들은 학생들의 눈을 통해 6명의 학생이 망명할 수밖에 없었던 베네수엘라 상황을 보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감을 듣는다. 베네수엘라인 UFV 학생인 21세 발렌티나 칼레Valentina Calle(법/범죄학 전공)는 같은 나이대 친구들이라면 하지 않을 걱정을 한다. “가끔 저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병을 고칠 약이 없어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발렌티나와 다섯 명의 베네수엘라 학생들은 선생님과 학교 친구들 모두의 지지를 받는 UFV가 그들에게 ‘집’이라고 말한다. 베네수엘라 UFV 학생들의 상황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지만, 이들은 긍정적인 면을 볼 수



메이라 암브로시오 라레도Mayra Ambrosio Laredo는 저널리스트이자 스페인 마드리드의 프란시스코 데 비토리아UFV 대학 교 연계 평화저널리즘 프로젝트인 평화통신원의 코디네이터다.



있는 눈을 가졌다. 베티나 피스만은,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 이주해야 했던 세대들은 삶을 완전히 바꿔야 했어요. 또 다른 장소에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최선이었죠. 하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가 더 유리해요. 우리는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더 명확하게 알고 있으니까요.”라고 말한다. 긍정적인 면을 보는 것을 넘어서, 베네수엘라 UFV 학생들은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은 베네수엘라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돌아갈 것이라고 말한다. 전 세계 사람들이 모든 베네수엘라인은 도둑이라거나 지금 베네수엘라를 망치고 있는 나쁜 사람들만큼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베네수엘라는 정말 보여줄 것이 많은 나라예요. 우리가 보여줄 거예요!” 루이즈 로페즈가 말했다.

베네수엘라 학생들은 이 디지털 다큐멘터리에서 베네수엘라의 실제 상황과, 고향에서 가족들과 국가의 위기가 계속되는 동안 그들이 어떻게 망명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지 보여준다. 학생들은 안드레이나 에르난

스페인에서의 삶을 즐기고 있는 베네수엘라인 루이스 에두알도 로페즈Luis Eduardo López와 발렌티나 칼레Valentina Calle.(왼쪽) ‘UFV의 베네수엘라인들: 망명의 역사’ 비디오 스크린 샷.(아래 왼쪽)

데스Andreina Hernández(저널리즘), 베티나 피스만Bettina Fisman(심리학), 세사르 퀴아로César Quiaro(건축학), 안드레스 아얄라Andrés Ayala(커뮤니케이션), 루이스 에두아르도 로페스Luis Eduardo López(미식학)다.

이 젊은이들 중 일부는 목숨을 걸고 시위에 참여했고, 주변 사람들의 걱정을 막기 위해 시위 참여를 숨기는 경우가 많다. 이 웹 문서에는 UFV 교수인 베네수엘라 사회학자 피델 로드리게스Fidel Rodríguez와 스페인 국영 라디오RNE,Radio Nacional de España 앙겔라 누녜스Ángela Núñez 국제부 기자와 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다.



스페인 UFV에 있는 베네수엘라 학생 안드레스 아얄라Andrés Ayala와 세잘 끼아로César Quiaro.

#DefyHateNow(지금 혐오에 저항하자)를 추구하는 디지털 프로젝트 - 카메룬

페디마 샤투 티타Pedima Shatu Tita

지디콤GIDICOM, The Global Initiative for Digital Inclusion and Communication(디지털 통합과 소통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은 2020년 1월 19일 일요일 기자 회견을 통해 카메룬의 바멘다Bamenda에서 #acts4peace237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지디콤GIDICOM의 대표 페디마 샤투 티타는 1시간가량의 기자 회견에서 캠페인 계획을 발표했다. 티타는 발표에서 #acts4peace237 캠페인은 #DefyHateNow(지금 혐오에 저항하자)의 일환으로 카메룬 내 잘못된 정보, 가짜 뉴스, 여성 대상 폭력, 혐오 발언의 위험에 대한 대중 인식 형성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티타는 가해자들이 여성의 나체사진과 비디오를 포토샵으로 조작하여 여성에게 몸값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유폐하겠다고 위협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인권을 크게 위반하는 것이며 디지털 경제에 혐오와 경멸을 유발한다.

“

우리 여성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자연스러운 환경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로잘린 오바 아카

”

티타는 언론인들에게 시민들이 혐오 발언과 폭력 선동 행위를 완화하기 위해 작은 조치를 취하도록 권장할 것을 촉구했다. 티타는 가정, 학교, 직장 등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소셜 미디어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고 온라인에서 혐오 발언과 잘못된 정보를 보고하기 위해 온라인 메커니즘을 활용할 의무가 있다. #acts4pace237은 온라인 플랫폼의 모든 사용자가 온라인에서 사물이 인식되는 방식에 맞춰 내러티브를 바꿔야 한다고 경종을 울린다.

티타는 “우리의 ‘클릭’이 평화를 구축하려면 먼 길을 가야 합니다. #HateFreeCameroon(혐오 없는 카메룬)을 위하여 함께 노력합니다.”라고 말했다. 캠페인 활동은 기자 회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캠페인의 기간은 1월 20일부터 30일까지 계속됐다.

분쟁지역 출신이자 인터넷 사용자인 여성들의 노변담화 세션은 이들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열렸다. 이 담화 세션은 일종의 치유 요법이기도 했다. 언론인들은 노변담화 세션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인터넷 접속에 필요한 기기들을 살 형편이 되지 않아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여성들에 관해 묻는 기자들도 있었다. 이에 대해 지디콤의 커뮤니케이션 및 홍보 전문가 로잘린 오바 아카Rosaline Obah Akah는 “난롯가는 과거 우리 부모세대가 스토리텔링을 위해, 재미로 또는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러운 환경으로 돌아가 이 여성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고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이 여성들이 스스로에게 평화로운 온·오프라인 공간을 보장하기 위한 작지만 중요한 걸음에 참여하도록 도울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카는 이어 “우리는 일부 여성들이 데이터 번들을 구매할 형편이 안 되거나 디지털 기기가 없어 인터넷 접속이 불가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향력을 갖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15명의 여성과 이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일단 영향을 주는 것이 확실해지면, 어떻게 다른 여성들을 참여시킬 수 있을지 볼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첫 담화 세션은 1월 25일에 열렸다. 카메룬의 앙글로폰 사태의 여파로 형성된 고통과 증오가 온·오프라인 내 혐오 발언과 폭력 행위로 표출되고 있다. 여성들은 억압받는 자와 억압받는 자 둘 다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디콤은 특별한 역량을 가진 여성들과의 담화를 조직했다. 이런 여성들의 이야기는 보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최자들은 이 여성 집단을 대화에 포함시키고 싶



페디마 샤투 티타
Pedima Shatu Tita는
부에아 대학교에서
언론학과 매스커뮤니케이션학 학위를
받았다.

어했다. 로잘린 오바 아카가 해당 세션의 사회를 맡았다. 티타는 #DefyHateNow와 #Act4peace237을 설명하고, 여성들에게 자신들의 작은 영역에서 평화를 옹호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담화 중에 여성들은 사별, 10대 임신, 총격전이 벌어졌을 때 뛸 수 없는 장애를 갖고 사는 삶 등의 아픔을 나눴다. 담화 세션 마지막에 티타는 15명의 여성 참가자들과의 대화가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우리가 삶에 영향력을 가지려면 우리 팀이 두 배로 더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참석자들은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DefyHateNow로 작지만 의미있는 행보를 보여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캠페인은 #Act4peace237, #DefyHateNow, #spreadlove(사랑을 알리자), #HateFreeCameroon으로 10일 간 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 미디어 캠페인을 진행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는 사미 자헤쉬 같은 언론인들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아프가니스탄 언론인들, 사방에서 공격받다

자이납 파라만드Zainab Farahmand

2018년 5월, 아프간 보안군 일행이 데야크Deh Yak로 이동 중이었다. 대장은 그들을 제자리에 멈추게 하고, 차에서 내려 나머지 여정을 도보로 계속하라고 명령했다. 자헤쉬는 가장 먼저 차에서 내린 사람 중 한 명이었다. 그러자마자 그는 엄청나게 큰 소리를 듣고 곧바로 땅바닥에 쓰러졌다. 총소리였다. 탈레반 군대가 그의 머리에 총을 쏘다. “기자가 죽었다!”라고 근처의 아프가니스탄 국군ANA, Afghanistan National Army 병사가 고함을 질렀다.

놀랍게도 자헤쉬는 헬멧 하나로 목숨을 건졌다. 사미 자헤쉬는 아리아나 TV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는 가즈니Ghazni 중부의 육군 작전을 취재하기 위해 ANA에 잠입했다. 자헤쉬가 죽었다 살아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0년 동안 다른 방송국의 카메라맨으로 일할 때도, 갖은 폭력을 경험했다. “우리에게는 정부도, 테러리스트들도, 심지어는 대중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많은 언론인처럼 저는 공개 집회와 시위에서 신체적, 언어적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

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라고 자헤쉬는 말했다. 자헤쉬의 이야기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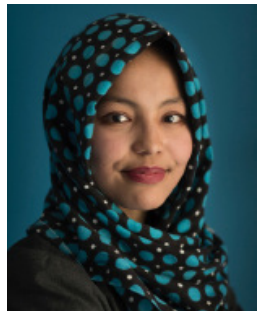
아프가니스탄 전역의 언론인들은 희생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계속 노력 중이다. 아프가니스탄 언론인 안전위원회AJSC, Afghan Journalists Safety Committee의 2018년 보고서에는 언론인 폭행이 121건, 사망은 17명으로 보고됐다. 17건의 사망 사건 중 11건은 카불의 사시 다락Shash Darak과 칼라 에 나제르 바르치Qala e Nazer-Barchi 지역에서 발생한 자살 테러가 기자들이 모여 있는 동안 발생했던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테러 단체들은 언론, 특히 의도적으로 표적으로 삼은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강한 폭력을 가하고 있다.

2017년에는 톨로 TV와 샴스하드 TV 방송국 스태프를 계속 공격했다. 이 공격은 방송국을 향한 복수 행위였다. 그러나 2018년의 공격은 순수하게 소속 언론인들을 겨냥했다. 카불 샴수다락Shashdarak에서 발생한 4월 30일 테러로 언론인 9명이 숨지고 5명

이 다쳤던 것이 대표적이다. 자헤쉬는 이러한 폭력사태를 피하기는 어렵지만,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서 최소한 사망 사건은 예방할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저는 촬영기자, 사진기자, 리포터 모두 AJSC가 배포한 안전 조끼와 헬멧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론인들이 직면한 위협은 죽음만이 아니다. 노 룰 아인Noo rul Ain은 해사서브 데일리Hasht-e-Subh Daily지에 많은 보

다음 쪽에서 계속

자이납 파라만드Zainab Farahmand는 아프가니스탄 여성 저널리스트들과 아프가니스탄 기자들을 훈련하고 멘토링을 제공하는 사하르 스피크Sahar Speaks에서 훈련받았다.



도를 낸 탐사 저널리스트다.

노를 아인은 불법으로 토지를 차지한 정부 공무원 아들에 대한 보도를 낸 뒤 무수한 위협을 받게 되었다. 노를 아인은 어쩔 수 없이 집을 옮겨 3개월 동안 은신해야 했다. “그들은 제 예전 주소를 통해 저에게 전화를 걸고선, 제가 피해 다녀도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내 아들과 아내를 찾아낼 거라 했어요.” 에틸라트-루즈 데일리(Etilaat-e-Rooz Daily)의 자키 다라비(Zaki Daryabee) 국장에 따르면, 탐사 기자 중 한 명이 심각한 위협 때문에 탐사 영역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 기자는 이후 탐사 보도를 전면 중단해야 했다.

이제 그 기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익명으로 기사 쓰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의 탐사 기자들은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의 정보 접근법은 모든 정부 기관이 정보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AJSC의 연례 보고서에 정부 공무원들이 넘겨줄 정보를 선택한다는 것을 밝혔다. AJSC는 많은 언론인이 고위 정부 회의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언론인들이 탐사 보도를 위해 정보를 요구하면, 정부 기관들은 그들의 요구를 즉각 거절한다.

자혜쉬는 “만약 정부 기관이 그들에 반대하

는 보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언론인들을 위협하고 강제로 호의적인 보도를 쓰도록 강요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AJSC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기자들의 정보 접근 요청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탈레반과 ISIS 이후 주요 언론인 대상 폭력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자이기도 하다.

폭력에는 매질, 부당한 구금, 악성 댓글, 부당한 법정 소환 등이 포함된다. 여성 언론인은 폭력에 훨씬 더 취약하다. 이들은 삶의 위협과 함께 성폭력을 당한다. 이에 맞서기 위해 AJSC는 2017년 3월 반성폭력 정책을 개발했고, 철저하게 실행되도록 모든 언론사에 전달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사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만 다룰 뿐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다루지 못한다. 프리랜서 탐사 저널리스트 닐라브(Nilaab)는 “저는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이었습니다. 저와 이야기를 나눈 부처 관계자는 정보 제공의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부처 관계자와 얘기를 나눈 후, 그녀는 결국 탐사를 끝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괴롭힘은 계속되었다. 이 관계자는 닐라브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고, 결국에는 그 연락처를 차단해야만 했다. 2001년, 탈레반이 몰락한 이후, 언론은 책임감과 투명성, 인권을 증진시키는 것과, 탄탄한 보도를 통해 카불과 지방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데 엄청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탈레반과의 평

화 회담은 향후 아프가니스탄의 언론 자유에 우려를 낳고 있다. AJSC의 이사 나집 샤리피(Najib Sharifi)는 “우리는 언론의 자유 영역에서 이론 성과를 놓고 평화협상가들이 타협할 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언론의 자유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평화협상가들이 타협한다면, 그 타협이 어느 정도 선까지 일까요? 우리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라는 영역에서 어렵게 얻은 업적을 지키기 위해 투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라고 말했다.



아프가니스탄 언론인 안전 위원회(Afghan Journalists Safety Committee(http://ajsc.af))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기자들의 안전과 언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아프가니스탄 최대 규모 단체다. 이들은 언론 종사자들의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수백 개의 방탄조끼와 헬멧을 기자들과 언론사에 배포했다. AJSC는 2009년 3월 국제 미디어 지원(IMS, International Media Support)에 의해 조직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카불 컨퍼런스(Kabul Conference on Freedom of Expression)의 권고를 바탕으로 결성되었다.



아프가니스탄의 갈등은 언론인들을 위협에 빠트린다

짐바브웨, 2월 세계 라디오의 날을 기념하다

유네스코UNESCO

짐바브웨는 올해 세계 라디오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세계 행렬에 합류했다. 정보통신부 장관 모니카 무츠방와(Monica Mutsavangwa)는 정부가 전국에 지역 라디오 방송국을 설립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무츠방와 장관은 2020년 2월 13일 그웨루(Gweru)에서 열린 국가 기념식에서 지역 사회 라디오가 발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무츠방와 장관은 “지역 라디오 방송국의 설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관은 “우리는 라디오의 힘을 믿으며, 시민들이 국가발전에 기여하려면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지역 라디오는 상업방송과 공영방송 외에 제3의 라디오 방송 모델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역 방송국은 지리적인 이해와 공동체의 관심사를 제공한다. 지역 방송국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를 허용하고,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발전을 조성하며, 사람들의 정보 접근성을 허용한다.

같은 행사에서, 남아프리카의 유네스코 정보통신부 고문인 알 아민 유수프(Al Amin



유네스코UNESCO는 교육, 사회, 문화를 위한 유엔 조직이다. 교육과 과학, 문화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통한 평화 구축을 추구한다. UNESCO의 프로그램은 2015년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2030 아젠다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성취를 목표로 한다.



2월13일, 짐바브웨 장관 모니카 무츠방와(Monica Mutsavangwa)가 그웨루에서 라디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Yusuph)는 라디오가 강력한 소통 및 정보 매체라고 말하며, 지역 라디오 방송국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덧붙였다. 유수프 고문은 모든 라디오 방송국 뉴스룸이 다양성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디오 콘텐츠 뿐만 아니라, 기술자, 프로그래머, 언론인, 음향 기술자 등 콘텐츠 제작자들 사이에도 다양성은 담보되어야 하며, 이런 점에서 모두가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유수프 고문은 “라디오 산업 자체가 우리 사회의 복잡성과 풍요를 반영하는 다양성 산업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성은 자산이기도 합니다. 다양성은 곧 상품의 창의성과 혁신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라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인 오드리 아줄레이(Audrey Azoulay)의 메시지를 인용했다.

2011년 유네스코 회원국이 선포하고 2012년 유엔총회에서 국제의 날로 채택한 세계 라디오의 날은 2월 13일에 전 세계적으로 기념된다. 라디오는 다양성 속 인류애를 기념하기 위한 강력한 매체로서 민주적 담론의 플랫폼 역할을 한다. 전 세계적으로 라디오는 여전히 가장 널리 소비되는 매체다. 다양한 청중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라디오

의 특별한 매력은 사회가 다양성을 경험하는 방식을 형성하고, 모든 사람이 목소리를 내고, 대표되고, 듣는 장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라디오 방송국은 다양한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다양한 프로그램, 관점 및 콘텐츠를 제공하고, 조직과 운영에서 시청자의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



the PEACE JOURNALIST

10월호에는...

USIP 코커스 프로젝트
네팔 평화저널리즘 프로젝트



©2020 by Park University